

2016
SUMMER
VOL.23

—
화성시문화재단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Live

야외공연장에서 즐기는 ‘오픈 더 콘서트’

반석산과 맞닿아 있어 더욱 싱그러운 동탄 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매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오픈 더 콘서트’와 함께 도심 속 문화피크닉을 즐겨보자.



Theatre I

400년이 지나도 궁금한 그 이름 윌리엄 셰익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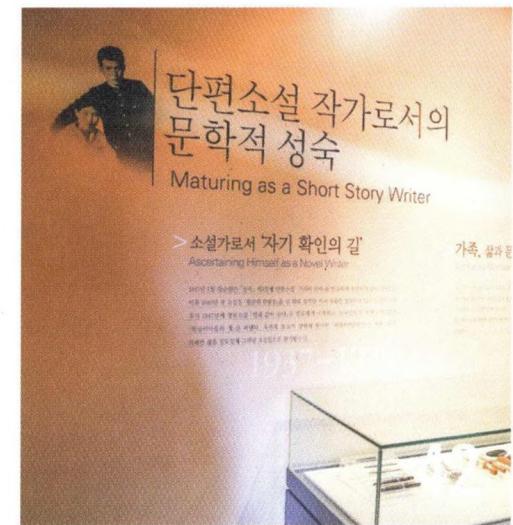
올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다. 세계 곳곳에는 셰익스피어를 기리는 행사가 끊이지 않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남다른 상상력과 복잡한 인간상으로 끊임 없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인터뷰 I

여성이여 당당하라 여성비전센터 명사특강 유인경

지난 5월 유엔아이센터에서 열린 유인경 기자의 특강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라는 주제 아래 유쾌하게 진행되며 화성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들과 가다 II

노작홍사용문학관 문학현장답사

문학 작품 속 현장과 작가의 빛자취를 따라 가보는 ‘문학현장답사’. 올 상반기에는 황순원 작가의 고결한 삶과 문학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나기마을과 세계적인 문호들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잔아문학박물관을 다녀왔다.



[華盆]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2016
SUMMER
VOL.23

—
화성시문화재단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발행처 | 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 권영후
편집인 | 윤태원, 허명범
기획·취재 | 기획홍보팀 이소영, 표정민
디자인 | 한라애드플러스(주)
홈페이지 | www.hcf.or.kr

※본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화성시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자료와 기사는 본 재단 기획홍보팀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본 재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일부 기사의 내용은 본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TEL 031.8015.8112 FAX 031.8015.8129

The ... 담다

- 02 특집**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여름특강
04 Live
야외공연장에서 즐기는 '오픈 더 콘서트'
08 화성시 숨결을 찾아서
사람들의 공간, 안곡서원
12 기획기사
화성시문화재단의 새식구 '진안도서관' '생활문화센터'

The ... 보다

- 14 Theatre I**
400년이 지나도 궁금한 그 이름, 윌리엄 셰익스피어
18 Theatre II
봉담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
20 Exhibition
2016 생태특별전시전
22 Culture
병점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4 Art
동탄예술시장을 채우는 우리지역 예술가들

The ... 듣다

- 26 인터뷰 I**
여성비전센터 명사특강 유인경
30 인터뷰 II
청소년수련관 배재원 대리
32 칼럼 I
웹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34 칼럼 II
나는 작은 영화관이 좋다

The ... 가다

- 38 그들과 가다 I**
로타리안도 반한 화성시 전곡항, 그리고 벗놀이 축제
42 그들과 가다 II
노작홍사용문학관 '문학현장답사'
44 그곳에 가다 I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화성시 산 ①
46 그곳에 가다 II
화성시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스낵콘서트'

The ... 하다

- 48 건강한 화성**
단기간 몸만들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50 리뷰&프리뷰
52 화분뉴스
56 문화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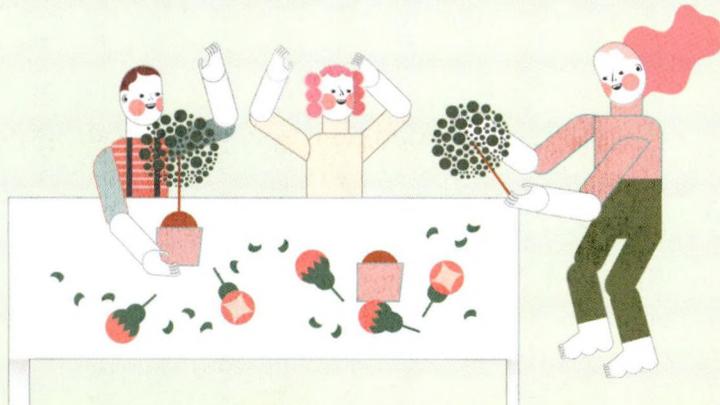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아까운 여름방학!!
친구들과 즐기는 문예강좌**

무더운 여름이여 안녕~

성큼 다가온 여름에 앞서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는 단기 특강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심화 과정까지 무더운 여름 특별한 추억이 필요하다면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여름 강좌를 살펴보자.

화성문예아카데미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는 단기 강좌

화성문예아카데미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기회, 운영함으로써 화성시민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전하고 있다. 나아가 배움의 과정에서 습득되는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이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7월 강좌는 2학기 정규 프로그램에 앞서 진행되는 계절학기로,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유아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예술을 창작하고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감상, 체험, 만들기 등의 통합교육을 통해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감수성, 협동심을 기르고,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2016년도 여름 계절학기에서는 신규로 개설된 <규정할 수 없는 매력, 춤>과 <어린이 플로툰> 강좌가 눈길을 끈다. <규정할 수 없는 매력, 춤>에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춤의 역사를 배우고, 현대무용사에 획을 그은 무용가들을 보며 춤이 가진 강렬한 마력을 빠져볼 수 있다. 플로리스트(Florist)와 카툰(Cartoon)의 합성어인 플로툰(Flotoon) 강좌에서는 심신의 안정을 주는 꽃과 무한 상상력의 원동인 만화를 결합하여 표현의 다양성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이 진행된다.



청소년수련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위주의 강좌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설계하고, 문화 예술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여름학기에는 교실을 벗어난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기 위주의 수업이 다수 개설되어 밀도 있는 문화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름학기에서는 <사이언스블록> 강의와 <드론 창의교실>이 눈에 띈다. <사이언스블록>은 창의교구인 케이넥스를 이용하여 건축, 블록, 항공 등의 사물을 사실적으로 조립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발견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개설된 <드론 창의교실>에서는 드론을 직접 조립하고 조종해볼 수 있다. 지난 5월 <토요가족문화체험-드론>을 통해 처음 선보인 드론 강좌는 가족이 함께했던 체험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여름 진행되는 드론 강의는 총 12주 과정으로 다양한 드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행원리, 항공 법규 등을 배우고, 직접 촬영한 항공 영상을 편집하여 발표하는 등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수련관 여름학기에는 다양한 음악, 미술, 어학, 인문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화성시시립도서관 책과 함께 떠나는 읽기, 쓰기, 만들기 여행

화성시시립도서관에서도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준비하고 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화성시시립도서관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어 지역주민의 문화적 니즈를 해소함과 동시에 참여 수강생들의 공모전 출품을 도울 예정이다. 봉담도서관에서는 어린이의 호기심과 적성을 고려한 강좌를 개설하여 유익한 체험을 제공한다. 과학실험실, 전통놀이 한마당, 책 만들기 등의 방학 특강 외에도 독서특화 강좌로 ‘작가가 직접 지도하는 글쓰기 창작수업’, 경제특강으로 ‘저축과 투자 보드게임’ ‘경제삼총사 보드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서관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를 하며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책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특강은 동화지역아동센터와 수영지역아동센터를 찾는다.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어린이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정서발달을 위해 기획된 여름학기 강좌는 다양한 독후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사고력게임을 통한 두뇌개발, 집중력·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독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술술 쓰는 독서감상문>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병점도서관에서 독서연계강좌를, 삼괴도서관에서 생태 관련 강좌를 개설하며 지역 아동들과 함께 할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문학의 무한한 변신이 주는 다채로움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청소년 문학교실>을 통해 교과서 속의 건조한 ‘문학’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생생한 ‘문학’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간다. 이번 특강은 소설 낭독극, 문학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문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창의력과 감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문학을 통해 역사와 사회,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청소년이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강은 총 3일간 진행된다.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평론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와 소설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글쓰기’가 진행된다. 이튿날 이어지는 책 읽기와 글쓰기는 중·고생 각각의 반을 나누어 진행되고, 이어 전문 강사진의 독서지도와 논술교육 아래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감상하며 문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날에는 문예백일장을 통해 문학적 재능을 한껏 뽐낼 수 있다.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지고, 이어지는 문학콘서트와 낭독극의 감동 속에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알찬 여름을 위한

대상별 추천 강좌

어린이

병점도서관 | 짤랑, 짤랑 경제를 배워요!

- 대상 초등 1~3, 4~6학년
- 수업 8월 20일(토)
- 신청 7월 18일(월)~31일(일)

가족

삼괴도서관 | 그림책따라 여름나기

- 대상 4~5세+엄마
- 수업 8월 9일(화)~13일(토)
- 신청 7월 26일(화)~28일(목)

청소년

노작홍사용문학관 | 청소년 문학교실

- 대상 중고생
- 수업 8월 10일(수)~12일(금)
- 신청 7월 12일(화)~8월 5일(금)



도심 속 문화피크닉, 야외공연장에서 즐기는 ‘오픈 더 콘서트’

반석산과 맞닿아 있는
동탄복합문화센터의 끝자락에는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마주한 채
빼꼼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야외공연장이 있다.
600여 개의 객석을 갖추고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의 앞으로는 화려한
빌딩 숲에, 뒤로는 편안한 자연
숲에 둘러싸여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화성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쉼터, 야외공연장의
2016년은 어떤 모습일까.

60일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맞이

2011년 개관 이후 5주년을 맞이한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이제 겨우 5살이 된 신생 공연장이지만 이슬과 햇살을 머금고 예쁘게 자라 난 꽃과 나무들이 있는 반면, 숱한 비바람과 계절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된 탓에 검붉게 녹슨 구조물들도 있었다. 자연과 함께하기에 더욱 좋은 야외공연장이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상 시설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야외공연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노후된 시설과 구조물의 보수는 물론, 새로운 무대 장비를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연장 무대 시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충했다. 먼저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음향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연장 외부에서도 음향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하고, 회로 공사를 통해 기존 음향 신호, 전기선의 외부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이 많은 야외공연장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난간 보강공사도 진행하였다. 그중에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대 시설을 보충한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500인 치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더욱 풍부한 영상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세트바텐을 설치하여 무대장치 및 공연 세트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2016년에는 안전하고 개선된 공연 환경 덕분에 높은 수준의 다채로운 공연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13개의 공연과 2회의 공연 실황 영상 상영으로 개관 이래 최다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해가 될 것이다.

도심 속 피크닉! 야외공연장 두 배로 즐기기!

LEVEL 1

야외공연장이 처음인 당신이라면

'우리 동네에 야외공연장이 있다고?'라고 묻는 당신이라면 일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입구에 있는 분수대를 지나 쭉 걸어 들어와 보자. 잔디밭과 함께 넓게 펼쳐진 야외공연장이 두 팔 벌려 반겨줄 것이다. 객석 옆으로 나 있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동심을 일깨우는 그네가 있고, 잔디 언덕의 중턱에는 줄지어 돌아가는 색색의 바람개비들이 환영인사를 해준다. 언덕의 끝자락에는 예쁘게 자라고 있는 다발리아 꽃밭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 자연과 함께 뛰노는 토끼와 청설모도 만날 수 있다.

LEVEL 2

공연만 보고 돌아갔던 당신이라면

매번 공연시간에 딱 맞춰왔다고요? 오늘만은 도시락과 음료수를 챙겨 조금 일찍 나와보자. 야외공연장을 마주하고 있는 '피크닉존'에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 테이블과 파라솔이 준비되어 있다. 뜨거운 햇살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가족, 친구와 함께 모여앉아 간단한 간식을 즐기며 공연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LEVEL 3

진정한 도심 속 힐링을 원하는 당신이라면

야외공연장의 한편에는 반석산 둘레길 코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자연학습관-동탄복합문화센터-노인공원-노작마을-오산천 산책로-전망데크로 이어지는 총 1시간 40분 코스의 둘레길에서는 반석산의 아름다운 생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또 산책로 중간 중간 자연생태학습이 가능한 습지와 작은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야외공연을 즐기기에 앞서 걸어보는 산책이야 말로 진정한 도심 속의 힐링이 아닐까.

푸르른 여름 햇살을 가득 머금고 관객을 기다리는 야외공연장

어둑어둑 해질 무렵, 한낮 동안 뜨겁게 달아오른 땅을 식히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하나둘씩 켜지는 조명, 어스름한 초저녁의 하늘빛과 조명에 반짝이는 나뭇잎, 그리고 바람을 스쳐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같은 공연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마음에 남는 감동이 다르다. 자연이 또 다른 무대가 되어 전하는 설렘과 감동, 공연을 보다가 나오는 감탄사와 환호성,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마저도 하나의 공연 요소가 되는 야외공연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야외공연의 이런 매력 덕분에 국내에서도 캠핑 등과 어우러진 다양한 아웃도어 콘서트,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트렌드를 넘어 중요한 공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여름이 되면 ‘숲의 무대’라는 의미를 가진 베를린 ‘발트뷔네 콘서트’,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콘서트 인 더 파크’, 비엔나 천부른 궁전에서 열리는 ‘천부른 여름밤 콘서트’ 등 각 도시를 대표하는 야외 공연이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국내 또한 야외공연은 야외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주요 공연 콘텐츠로 자리 잡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 하는 화려한 콘서트보다 <오픈 더 콘서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우리 동네 공연장에서 편안하게 웃고 즐기며, 공연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선보이는 <오픈 더 콘서트>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연들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고상함을 벗어던진 야외공연장에서는

클래식 공연에서 갖춰야 하는 에티켓을 잊어도 좋다. ‘만 7세 이상’이던 관람연령 제한도, 부담스러운 티켓 가격도 모두 잊고 지역주민 누구라도 즐길 수 있다.

올해 <오픈 더 콘서트>의 첫 무대는 80년대 추억의 포크송을 부르는 ‘소리새’와 ‘여행스케치’가 장식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80년대 히트송들을 함께 부르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만끽했다. <오픈 더 콘서트>는 모두에게 열린 콘서트인 만큼 선보이는 공연의 장르도 다양하다. 6월에는 라틴, 탱고, 스윙 음악을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연주팀 ‘새바’의 열정적인 공연이, 서울 거리 아티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1인 서비스 광대 ‘마린보이’와 크고 작은 비눗방울로 다양한 버블쇼를 선보이는 아티스트 ‘팀클라운’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있었고, 7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시작에는 국내 최초 6인조 콘트라베이스 앙상블인 ‘미스터베이스’의 웅장한 공연이 자연과 어우러져 공연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야외공연은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유쾌하고 기상천외한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잼스틱’, 15명의 비보이가 선보이는 강렬한 아크로바틱과 댄스 공연 ‘에스플라바’, 클래식 연주로 영화음악의 감동을 전하는 ‘뮤직클레프 솔리스트 앙상블’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술의전당의 우수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아츠 무비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다. 야외공연장은 늘 열려 있다. 정해진 좌석이 아니어도 피크닉존 곳곳에 놓인 그네에 앉아서, 잔디밭에 펼쳐놓은 뜻자리에 누워서, 둘레 길로 이어진 산책로에서 유모차를 끌면서 음악을 들어도 좋다.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 그것이 바로 2016년 야외공연장이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2016년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이열치열(以熱治熱).
한낮을 뜨겁게 달군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뜨거운 공연의 열기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잔디
공간에서 예술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의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정	프로그램
7.2	〈오픈 더 콘서트4〉 미스터베이스
7.16	〈오픈 더 콘서트5〉 잼스틱
7.23	〈오픈 더 콘서트6〉 에스플라바
7.30	〈오픈 더 콘서트7〉 뮤직클래프 솔리스트 양상불
8.3	〈아츠 무비 시리즈1〉 코리안 심포니 공연실황 'Spirit of Beethoven'
8.6	〈오픈 더 콘서트8〉 월드뮤즈
8.13	〈오픈 더 콘서트9〉 으랏차차 커다란 순무
8.20~21	〈가족 뮤지컬〉 코리요
8.24	〈아츠 무비 시리즈4〉 코리안 심포니 공연실황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9.3	〈소리결음악회1〉 해군군악대 윈드오케스트라 '명랑'
9.24	〈오픈 더 콘서트10〉 나무 챔버 오케스트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공연만큼은 꼭 챙겨보자!

넌버벌 비보잉 퍼포먼스 〈에스플라바〉

강렬한 비보잉과 아크로바틱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에스플라바'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국에 초청되어 실력을 인정받은 최고의 비보잉 퍼포먼스팀이다. 7월 23일 선보이는 무대에서는 고난도 아크로바틱, 불꽃쇼, 비보이 댄스, 비트박스, 태권도, 버블 매직,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유쾌하게 풀어낸 '지팡이쇼'로 관객들의 가슴에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빛을 활용한 에스플라바의 메인 퍼포먼스 '레이저쇼'와 'El Wire LED 댄스'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클래식 연주로 듣는 영화음악 〈뮤직클래프 솔리스트 양상불〉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뮤직클래프 솔리스트 양상불'이 모두가 공감하는 레퍼토리로 야외공연장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인지도 높은 세계 명화와 애니메이션 OST를 주요 연주곡으로 선정하여 대중성을 확보했다. 영화 미션의 '넬라판타지아', 겨울왕국의 '렛잇고',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문리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인생의 회전목마' 등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영화 음악들을 환상의 하모니로 선보인다. 풍부한 음색의 라이브 연주로 듣는 영화 음악들은 관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웅장한 정통 클래식,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2016년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중에는 우수 공연 콘텐츠의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Arts Movie Series〉도 있다. 8월 3일과 24일 야외공연장에서 상영되는 코리안 심포니의 '스피릿 오브 베토벤'과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공연을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음향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안 심포니는 1987년 창단 이후 1989년과 1990년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5천 명의 합창단과 함께 한 '대합창 연주회'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拉斯, 안젤라 게오르구, 라두 루푸 등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내한 공연에 함께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소박하지만 가볍지 않고 안온하지만 진중한 뜻을 담은

사림(士林)들의 공간, 안곡서원(安谷書院)

땡볕이다. 더위가 깊다. 무겁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꽉 찬 것을 보면 확실히 여름이다. 간간히 바람이 불지만 시원스럽게 몸을 내맡기기엔 역부족이다. 무더위에 지치고 머리가 복잡할 땐, 잠시 쉬어가는 것이 상책 아니겠는가. 훌쩍 준비 없이 떠나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곳, 조금은 느리고 독특한 방법으로 더위 털어낼 만한 곳이 가까이에, 한군데 있긴 하다. 오래 걸어 체력 소진할 일 없고 주변에 시선 빼앗길 만한 것 또한 없어서 온전히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 더불어 마음 가볍게, 큰 기대마저도 접어두고 어느 날 문득 찾아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곳'으로 가보라. 그저 높고 붉은 저 기둥 너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면 될 일이다.



길 끝, 붉은 기둥 너머로 들어가다

‘홍살문’을 지나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곳’에 들어설 수 있다. 그 옛날, 대궐은 물론 왕실 무덤인 능(陵) · 원(園) · 묘(廟)와 공공기관인 관아(官衙), 그리고 향교(鄉校) 앞에는 어김없이 홍살문이 섰다. 어디 그뿐인가. 충신이나 열녀가 나온 마을 어귀에도 그들의 뜻을 기리는 상징물로 홍살문을 썼고, 심지어는 사사로이 선조의 신주(神主)를 모신 재실(齋室) 앞에 설치하는 사대부도 있었다. 놓이는 자리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홍살문은 뜻 없이, 멋 부려 세운 구조물이 아니다. 중요한 곳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을 지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살문 아래를 지나다는 건, 신성한 세계 혹은 어느 정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홍살문이란 이름 또한 기둥의 색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화살 모양 막대로부터 유래했다. 기둥의 붉은 칠(朱漆)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벽사(闢邪)’다.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고전적 의미의 재현이라 보면 큰 무리가 없다. 그 많은 홍살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야 할 문은 화성시 서신면에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조용하고, 찾는 이 많지 않아 한적한, 그래서 애초부터 평안했을 법한 ‘안곡서원(安谷書院)’을 지키는 홍살문이 바로 우리 여행의 출발점이다. 서원이 무엇인가. 학문이 깊고 덕행이 높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의 위패를 모셔 그들을 기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공간이다. 또한, 유생들이 그들의 모범이자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이들의 뜻을 받아 유학(儒學)에 정진하는 곳이다. 그러니 서원 앞에 홍살문을 세워 지나기 전과 후를 구획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역사 속 네 사람과 마주하다

안곡서원은 현재 화성시 일대에 남은 유일한 서원이다. 본래 이 근방에는 안곡서원을 비롯하여 옛 행정 구역인 화성도호부와 남양도호부 때 세워진 명고서원과 매곡서원(화성시 매송면 소재)까지 총 세 개의 서원이 있었다. 이 모두가 사라진 건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문이었다. 오직 단 한 곳, 안곡서원만이 1976년에 복원되었다. 안곡서원이 건립된 건 이로부터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 현종 9년(1668)의 일이다. 남양 현감 민시중(閔蓍重)이 기묘사화(己卯土禍) 때 조광조(趙光祖)와 연루, 유배되었다가 끝내 강계에서 숨을 거둔 박세희(朴世熹, 1491~미상)를 기리기 위해 세운 안곡사(安谷祠)가 그 시작이 되었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현종 11년(1670), 효자로 이름 높았던 박세희의 형 박세훈(朴世勳, 1488~1553)을 함께 배향했고, 다시 30여 년이 지난 숙종 26년(1700)에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홍섬(洪暹, 1504~1585)의 위패가 안곡사 한 편에 자리했다. 사당의 역할에 충실했던 안곡사는 경종 1년(1721) 국가로부터 서원의 이름이 적힌 편액을 받은 후, 안곡서원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원을 둘러싼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잠시 그 이름을 잃어 버렸다. 서원으로서의 지위와 이름을 되찾은 것은



안곡서원을 지키는 홍살문

영조 16년(1740), 경기 유생 한덕봉(韓德鳳) 등이 안곡서원의 복원을 주장한 뒤의 일이었다. 안곡서원에 처음으로 배향된 박세희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사림파와 교유했던 인물이다. 중종 9년(1514)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 홍문관수찬, 이조좌랑 등의 벼슬에 올랐고 기묘사화로 고초를 겪기 직전까지 좌부승지를 지냈다. 훗날 안로(安璐)가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인물에 관해 정리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박공은) 시화가 일어나던 날 충암(沖庵) 김정(金淨)과 함께 조옥에 간혔다. 윤자임(尹自任) · 기준(奇遵) · 박훈(朴薰)과 같은 죄목으로 국문 받았다. 공이 공초하기를, “신은 나이 28세입니다. 나이가 젊을 뿐 아니라 성품 또한 거칠고 어리석어서, 행검(行檢)이 없었습니다. 옛사람의 글을 읽고 시의(時宜, 그때의 사정)를 참작해서 일을 정성으로 하는 것이 신의 직분입니다. 조광조는 신이 어려서부터 교유하였고 김정 · 김구(金綎)는 항상 사귀었으니, 그들의 논의가 과격한 줄은 모르고 따랐을 뿐이요, 아부한 것은 없습니다.”하였다. –안로「기묘록보유」

안곡서원에 나란히 배향된 박세훈은 효성이 자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는 “서울 주자동(鑄字洞)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교관(敎官)에게 수학하였다. 교관이 그 효성이 천성임을 알고서 매우 기특히 여겼으며 늘 주동 효아(鑄洞孝兒)라 불렀다. 가는 곳마다 그 소행을 전해 말하니 듣는 이가 모두 칭찬하였다. 조금 성장한 뒤에는 경전(經傳)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 봉양에 정성과 예를 다하였다. 17세인 갑자년(1504) 여름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는데 상사(喪事)에는 예를, 제사에는 정성을 다했으며 남양에 있는 묘소 아래에서 여묘살이 하는 3년 동안 죽을 먹고 슬픔에 몸을 상한 것이 예도에 지나쳤으므로 보는 이들마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마지막 인물 홍섬은 남양 홍씨 후손으로 명종 7년(1552)에 청백리(淸白吏)로 뽑혔으며, 특히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경서(經書)에

밝았던 것으로 전한다. 선조 때 영의정을 여러 차례 맡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특별히 원로대신들에게 하사하는 지팡이와 의자인 궤장(机杖)을 받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의 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인물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중종 때 개혁을 추구하다 사회에 휩쓸린 조광조다. 박세희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조광조의 문인들과 교류했고 홍섬은 그의 문인이었으며 박세훈은 학문적 역량의 특출함을 인정받아 한때 조광조에 의해 별과(別科)에 천거된 적이 있다. 안곡서원에 안치된 위패는 세 사람의 것뿐이지만, 실은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 속에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작지만 또렷하게 새겨진 성리학적 공간의 의미를 읽다

서원은 학교다. 그것도 사립학교다. 그래서 서원의 역할을 어렵게 표현하면 ‘사람의 장수처(藏修處)’라고 한다. 풀어보면 별것 아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다.”는 뜻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서원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다.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취회소(聚會所)’였던 것이다. 물론 서원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서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기능이자 확실한 설립 목적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공간은 그런 목적이 맞게 구성되어야 했고 비록 규모가 작고 소박하지만 안곡서원

또한 그 기능에 필요한 건물들을 갖추고 있다.

안곡서원의 첫 얼굴은 바깥문인 외삼문이다. 하나의 지붕 아래 문이 세 개라서 그렇게 부른다. 문 중앙에는 ‘安谷書院(안곡서원)’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위신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하지만, 외삼문의 그런 의미와 형식은 이미 퇴색한 지 오래다. 외삼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그리 크지 않은 하나의 건물이 등지고 앉은 것을 볼 수 있다. 옆으로 올라가 마주하고 보면 ‘講堂(강당)’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유학을 논하고 익히며 공부하는 공간, 즉 강학(講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 학문에 오롯이 집중해야 하니 문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신 강당은 훨씬 더 위쪽의 또 다른 건물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건물까지 가려면 하나의 관문을 더 넘어야 한다. 역시나 세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쪽에 있어 내삼문이라 부른다. 이 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박세희를 중심으로 좌우에 박세훈과 홍섬의 위패가 놓인 공간, 사당을 볼 수 있다. 안곡서원이 세워진 이유를 가장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당 앞에서 서 시선을 돌리면 서원 바깥쪽으로 나지막한 산과 여러 기의 묘를 볼 수 있다. 박세희와 박세훈 형제를 비롯한 상주 박씨 문중의 묘역이다. 자신들의 충과 효, 덕을 기려 세운 서원 옆에 잠들었으니 조선의 문인이자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보다 더 나은 자리는 없으리라.





박세희, 박세훈, 홍섬의 위패가 놓인 사당



안곡서원 비석

걷고 보고 머물며 느린 시간에 취하다

낯선 공간과 그곳에서의 경험이 일상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더위에 지친 날들, 멀리 떠나기엔 힘들지만, 잠깐의 쉼표 같은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곡서원을 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안곡서원은 규모가 크지 않다. 배향된 인물들의 화려한 유명세도 없다. 관광객으로 항상 북적이는 공간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기리는 마음과 역사 속 이야기가 소박하고 아담한 건물에 깃든 곳이다. 그래서 더욱 안온하다. 안곡서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선 홍살문을 지날 땐, 잠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양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라. 서원 앞에 놓인 안내판이 눈길을 끈다면 다가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아도 좋다. 그 작은 안내판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듯 보였던 안곡서원이 실은 1985년에 이미 화성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음을 담담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안곡서원의 외삼문으로 들어선 뒤에는 강당 앞으로 올라가 그 앞에 앉아 보는 것도 괜찮다. 이제 한숨 돌렸다면 작은 언덕을 오르듯 천천히 주변 풍경과 서원의 모습을 음미하며 사당까지 걸어보기를 권한다. 사당에 다다르면 그곳에 배향된 세 사람을 기리는 마음으로 단 몇 분 만이라도 눈을 감아 보면 어떨지. 욕심내지 않고 마음 다듬을 수 있는 짧은 여행이 이만하면 꽤나 근사하지 않은가.



안곡서원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안곡서원 가는 길

안곡서원은 화성에서 제부도로 가는 길가, 서신면 입구에 있다.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860-360이며 상안리다. 혹시 승용차가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떠나는 여행이 그리운 사람이라면 화성 동탄에서 제부도까지 운행 중인 1000번 버스를 이용할 것. 동탄에서 출발하여 상안2리 정류장까지 약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단 하루 3회만 운행되니 나오는 시간과 들어가는 시간을 확인하고 타야 한다. 정류장에서 내려 500여 미터를 걸어가면 그곳에 안곡서원이 있다.



추천할 만한 시선

서원으로 들어가 무작정 직진, 안쪽 건물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곤란하다. 안곡서원 곳곳을 충분히 감상한 뒤에는 외삼문을 향해 돌아선 채로 바깥 전경 살펴보기를 권한다. 안곡서원의 모든 문과 건물이 얇은 경사에 놓여 있어 사당으로 가까이 올라갈 수록 시야는 더욱 좋아진다. 왜 공부하는 유생들의 공간 강당을 문과 반대 방향으로 앉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새 식구 진안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016년 하반기, 화성시에는 13번째 화성시시립도서관이 진안동에, 생활문화센터가 향남읍에 들어선다. 화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생활예술의 저변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의 새로운 식구를 미리 만나보자.

열세 번째 화성시시립도서관

화성 진안도서관은 진안동의 첫 공공도서관이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인 도서관으로서의 가능성과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되는 진안도서관은 화성시 진안동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다람산공원 대지 위에 힘 있게 솟아 올라 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진안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도서관의 외관은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나타내는 다채로운 벽돌과 그 지식과 정보들이 모여 응축된 거대한 정방형이다. 갈색 계열의 점토 벽돌을 사용하여 지역 내 구심점으로서의 도서관의 무게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회색의 이미지를 통해 지식의 순수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 다람산공원 전경과 어울리는 단아한 이미지의 자연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접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도서관 내부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저층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들을 위한 유아·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을 두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고층에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드문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다목적강당, 문화교육실 등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열람실 내 창의 면적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정숙하고 집중도 높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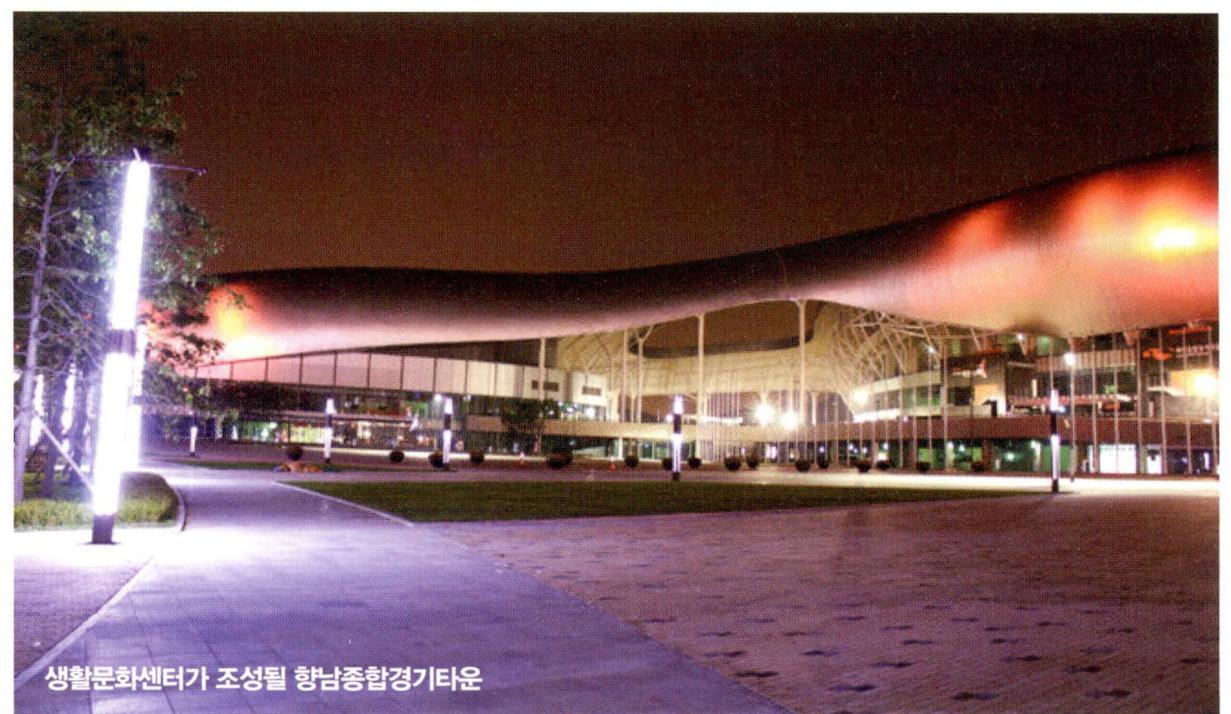
다람산공원에 입지한 진안도서관은 주변 경관도 적극 활용했다. 공원 팔각정자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에는 진안도서관의 옥상 테라스가 보이고, 도서관 건물을 둘러싼 외부 공간에는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심적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인다. 다람산공원의 자연이 고스란히 녹아든 휴식공간은 자그마한 산책로와 함께 시원하게 쏟아 내리는 폭포가 있어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틈새에서 빛날 생활문화센터

올 하반기 향남종합경기타운에 들어서는 생활문화센터는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의 도래, 주 5일제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높아진 문화예술 참여 욕구를 적극 반영한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문화 여가시설 인프라가 부족했던 화성시 서부지역에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자율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 간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오고 갈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이다. 운영 프로그램 또한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재능기부 프로그램, 예술가 연계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등 기존의 주민 관람형·강좌형 문화센터 형식에서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주요 역할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에 마주침 공간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생활문화센터를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고 모이게 된다. 센터 내에는 커뮤니티 공간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들의 발표가 가능한 다목적홀과 동호회·스터디그룹 간의 회의가 가능한 공부방, 그리고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목공 DIY 공방과 오픈형 키친을 두어 평소 전문장비 및 기술이 필요해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시설 내에 입지하기 때문에 기존 공간과의 조화, 생활문화센터만의 테마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에 화성시 생활문화센터는 종합경기타운의 기존 유리 벽면에 자유로운 곡선을 활용하여 복도와 각 공간에 상호 연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센터 입구는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게 입구 측면의 벽체를 포함하여 디자인된다.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객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구성하고, 교육실과 다목적실은 유리 파티션을 활용하여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용도에 맞춰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유리벽을 설치한다. 특성화 공간인 DIY 목공방은 공작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벽돌과 나무 핍판을 활용한 연출을 시도했다. 이에 이용객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 옆에서 목공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키친 역시 BAR 테이블을 이용한 인테리어로 참여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400년이 지나도 궁금한 그 이름 윌리엄 셰익스피어

올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교과서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접하거나 TV 퀴즈쇼를 보면 셰익스피어 4대 비극과 5대 희극을 암기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출생지 영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는 현재까지 연극과 문학 분야, 여타 예술 장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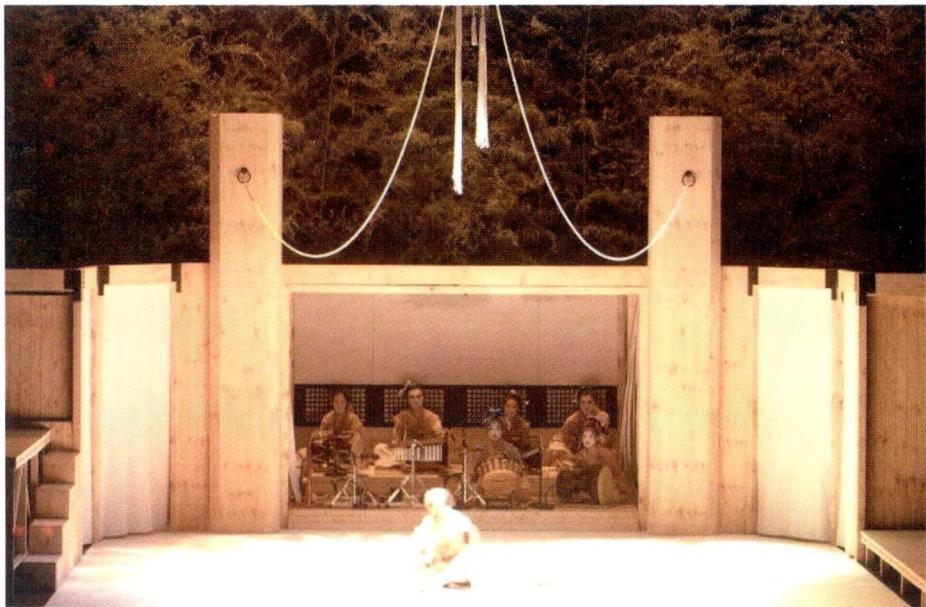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맥베스』『리어왕』『오셀로』 등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12편의 『햄릿』이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어 관객을 만난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드러나는 남다른 상상력과 복잡한 인간상은 동시대 관객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을 정도로 현대적이며 세련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이토록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막상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무수한 작품과 그와 관련한 논문, 자료들 역시 막대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자극을 주는 그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인간 탐구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사물, 멜로 러브스토리, 희극과 비극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무수한 인간상을 그려온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삶은 실제로 어땠을까. 셰익스피어는 1564년 영국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농작물과 모직물 중개업자였으며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의 시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셰익스피어는 유복한 집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와 고전 수사학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같은 교육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셰익스피어는 1582년 유복한 집안 딸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해 세자녀를 낳은 뒤 런던으로 거처를 옮겨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배우로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지는 못 했다. 오히려 극작가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면서부터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가 배우가 아닌 극작가의 길로 돌아선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우 감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1596년 아들이 죽으면서 셰익스피어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의 극작술과 작품세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1600년 이후 4대 비극과 『끝이 좋으면 다 좋아』『자에는 자로』『겨울 이야기』 등을 집필하였고 스트랫포드에 돌아와 1616년 숨을 거두었다.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



배우와 관객, 공동의 무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주로 런던의 공공극장에서 공연으로 올려졌다. 대개 원형 구조의 극장들이었으며 관객이 사방을 둘러싼 형태였다. 그는 이러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공연장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시대 공공극장의 무대는 가변적이며 유동적이었는데 이러한 형태 덕분에 『햄릿』에서처럼 빠른 장면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다. 빠른 장면 전환과 전개는 연극의 놀이성도 높이며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기에도 효과적이었다. 도구나 소품들을 통해 위치나 장소를 표현할 수는 있었지만, 연출적인 무대 배경은 따로 없었다. 무대가 사실적인 장치에 종속되지 않은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적인 장소로서 무대보다는 사건이 진행되는 공간으로서 무대의 기능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에서는 발코니로 표현되는 전망대가 실제로 있기도 했다. 가변적이고 중립적인 무대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기에도 자유로웠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에 올릴 작품을 썼던 셰익스피어는 무대를 철저히 인식하고 고려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극장 공간이 지닌 특징과 효과를 극작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관객들을 빠져들게 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탄생했을 것이다.

한여름 밤 펼쳐질 〈한여름 밤의 꿈〉

『한여름 밤의 꿈』은 1595년도부터 쓰여 1596년도에 완성된 작품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순탄치 않은 길을 가는 세 쌍의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 쌍의 남녀는 다양한 장애물과 소용돌이치는 감정들 때

문에 혼란을 겪는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 한여름 밤, 숲 속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소동은 허구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조화를 보여주며,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보다는 결말을 향하는 과정이 더 강력한 매력을 뽐어내는 작품이다. 8월 27일,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 우리나라 대표 연출가인 양정웅 연출이 이끄는 ‘극단 여행자’를 통해 관객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관객과 평단에게 모두 인정받으며 10년 넘게 사랑받은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은 4개 대륙, 15개국, 65개 도시, 25개 페스티벌, 약 312회의 공연, 15만여 명의 관객을 만나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동양적인 표현방식과 해석 역시 한몫 제대로 했다.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은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에 대해 한국 고유의 미학을 표현하여 세계의 인정을 받은 작품으로 소개했다. 그의 말대로 원작 그대로 서양의 스타일을 재현한다면 국내와 해외에서 이토록 오래 사랑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극단 여행자’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연기, 울동을 통해 무대 위에서 마법적 세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원작에 등장하는 요정들은 한국의 도깨비로 치환되었다. 요정 ‘퍽’은 쌍둥이 도깨비 ‘두두리’로,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대니어’는 도깨비 ‘돗’과 ‘가비’로 재탄생, 해학성을 더했다. 세 남녀는 ‘항(亢)’ ‘벽(壁)’ ‘루(婁)’ ‘익(翼)’ 등 우리 별자리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무대미술에서도 한지와 대청마루 등 한국 고유의 미학을 즐길 수 있다. 언어 중심의 셰익스피어 연극이 몸의 세계로 이동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공연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독창적 신체 연기와 한국적 음색, 한국 무용의 조화는 관객과의 흥겨운 교감과 소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무대 산의 〈로미오와 줄리엣〉

인형극으로 만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인형극 전문 창작 극단인 '예술무대 산'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9월 10일 무대에 오른다. '예술무대 산'은 창작 인형극 〈달래 이야기〉로 2009년 스페인 티티리자이인형축제 최고작품상, 2012년 중국 세계 유니마총회 최고작품상, 2012년 제24회 춘천인형극제 금코코바우상 대상 등을 수상한 극단이다. 연출진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주목한 이유는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증오와 사랑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에서는 몬테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의 서로를 향한 증오가 자식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강력한데 정작 왜 그토록 증오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서로의 소중한 자식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연출진은 "서로 다른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지역으로 인해 생활습관이나 취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차이를 아름다운 조화로 만들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로 만들며 크고 작은 갈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작품이 출발했다고 전한다. '예술무대 산'은 인형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며 인형극적 문법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롭게 표현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융복합과 실험을 통해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공연으로 완성했다. '예술무대 산'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인형을 무대 위의 단순 오브제로써 활용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인형은 생명을 가진 인물로 창조되고 새로운 연극적 방식으로 구현되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고전이 어려워? 가지고 놀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매년 새로 해석되고 재창작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아마 그의 서거 500주년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직접 재해석하고 배우가 되어보는 〈화성 Art Play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화성 Art Play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인성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한여름 밤의 꿈』을 재해석해보고 표현해보는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화성시 거주 초등 3~6학년생으로 구성된 1차(1~4기수) 참가자 200명은 기수별로 50명씩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차(5~6기수) 참가자 100명은 9월에 모집예정이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 즉흥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해보며 수동적 고전 읽기가 아닌 체험적 읽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흥과 신명,
동양의 색채와 미학
극단 여행자 <한여름 밤의 꿈>**

극단 여행자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은 4개 대륙, 15개 국, 65개 도시, 25개 페스티벌, 약 312회의 공연, 15만 여 명의 관객을 만나며 국내 뿐 아니라 웰메이드 인 코리아

연극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왔다.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를 한국 전래의 육담과 해학으로 버무려 한국적 정서의 낭만희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새로운 해석과 뛰어난 독창성의 동양에서 온 셰익스피어’가 무대에서 한 판 벌이는 재기 발랄한 난장은 관객들에게 매혹적인 꿈을 선사한다.



공연일정 8월 27일(토) 17시
공연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문의 1588-5234

**그림자와 인형,
오브제로 만나는 비언어극
예술무대 산 <로미오와 줄리엣>**

사람 키보다 큰 인형을 배우들이 손으로 움직이며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언어 이미지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두 가장이 이끄는 가문의 오랜 다툼으로 죄 없는 시민이 수없이

이 희생되고, 심지어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두 집안의 싸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작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문이 왜 서로를 그토록 증오하게 됐을까? 극은 그림자와 인형, 오브제의 움직임으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새로운 해석과 질문을 던진다.



공연일정 9월 10일(토) 17시
공연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문의 1588-5234

**화성
ART PLAY
아카데미
(연극 감상 편)**

	대상	교육작품
5기	3~4학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6기	5~6학년	

	교육일정	
5기	9월 24일(토)	10월 8일(토)
	10월 22일(토)	11월 5일(토)
6기	10일 1일(토)	10월 15일(토)
	10월 29일(토)	11월 12일(토)

	강의주제	
1주차	오리엔테이션	
	연극이란 무엇일까?	
2주차	감상 작품 분석하기	
	연극적 움직임이란?	
3주차	감상 작품을 통한 즉흥극	
	작품 감상하기	

접수기간 9월 중 홈페이지 접수 예정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 (총 3시간)
교육내용 연극 작품의 재해석 및 감상
교육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M1층 영상교육실, 강의실 1
교육강사 연극배우 김찬훈, 윤소정, 김예니, 김혜인
수강료·재료비 무료

봉담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

일상 속에서 가끔은 생각지 못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우연히 들린 허름한 음식점이 그 지역의 맛집일 때, 필요해서 사려는 물건을
1+1으로 팔고 있을 때, 그리고 무심코 본 한 편의 공연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 때가 그렇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봉담도서관에서 보는 한 편의 공연이
당신에게 예고 없는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음 앙상블의 <봄의 클래식>



해설이 있는 발레

화성시 서부지역의 문화 플랫폼

화성시 중부에 위치한 봉담읍은 동서남북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공간·체육·보건 등의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봉담 택지지구 건설로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협성대학교 외 2곳의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초·중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이에 봉담도서관은 2009년 12월 개관 이래,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교육·문화·복지·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독서 증진과 함께 매년 다양한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연 1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7백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동탄복합문화센터와 유앤아이센터가 있는 동부권과는 달리 화성시 인구 61만 명(2016년 4월 기준)의 40.4%나 되는 약 24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서부권에는 아직 이렇다 할 전문 공연시설이 없다. 봉담도서관은 이러한 문화적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서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봉담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을 기획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의 여행

<봉담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은 특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역 도서관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와 영상의 발전으로 문화공연을 접하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지금, 봉담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이 필요했다. 봉담도서관은 '여행'을 특화한 도서관이다. 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공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악, 마당극, 판소리, 러시아의 발레,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매월 다른 주제로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봉담도서관의 문화공연 주제는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이 되었다. 제일 먼저 매년 200회가 넘는 공연과 가족극장을 운영해오며 서부지역의 공연문화를 선도해온 다목적홀(360m², 174석)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했다. 최적의 공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의 최신 음향 시스템을 갖추어 공연장 내 사운드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고자 했으며, 고광량 프로젝터와 1.5배 커진 스크린을 통해 더욱 선명한 영상으로 공연의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진행되는 공연의 관람 시간을 토요일 오후 3시로 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연으로 정착시켰다. 도서관의 주 방문객인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동화, 발레, 마술공연에서부터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장르인 클래식, 뮤지컬, 밴드, 성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첫 문을 연 4월 공연여행 <채음 앙상블—봄의 클래식>은 만연한 봄기운에 힘을 얻어 모든 객석을 채운 채 시작되었다. 채음 앙상블은 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챔버 앙상블로 전통에서 벗어난 클래식 연주를 통해 흥미로운 무대를 연출했다. 클래식이 생소한 관객들에게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공연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인 '마법의 성',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등을 연주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공연여행 <해설이 있는 발레>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작품인 <백조

의 호수> 중 '정경', <호두까기 인형> 중 '중국의 춤'을 선보였다. 기존 발레와는 사뭇 다른 '중국의 춤'은 리듬을 타며 뛰뚱거리는 동작이 명쾌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그 밖에 돈키호테, 지젤 등의 작품을 감상한 뒤 발레리나와 함께 부모님과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서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똘똘하게 잘 따라 하는 꼬마 여자아이의 발레 동작보다 겸연쩍고 쑥스럽게 발레 동작을 배우는 아빠들의 순놀림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향후 진행될 공연 역시 지역민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뜨거운 무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나는 7월에 기획된 <어쿠스틱 밴드의 기차 여행>은 '춘천 가는 기차' '제주도 푸른 밤' 등의 곡을 통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것이다. 8월은 여름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기한 미술 여행>, 9월에는 성악가가 들려주는 <뮤지컬 콘서트>, 10월 챔버 앙상블의 <영화 속 음악 이야기>, 11월에는 우리 가락 <해금 연주회>, 12월에는 <금관 5중주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은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을 뒤로하고 한 달에 한 번 봉담도서관으로 공연여행을 떠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소한 행복을 담아 가면 어떨까.

향후 공연

일정	공연명	접수기간
7.23(토)	어쿠스틱 밴드의 기차 여행	7.5~7.10
8.27(토)	신나는 미술 여행	8.9~8.14
9.24(토)	브로드웨이로 떠나는 뮤지컬 콘서트	9.6~9.11
10.29(토)	챔버 앙상블 '영화 속 이야기'	10.11~10.17
11.26(토)	해금 연주회 '공감'	11.8~11.13
12.17(토)	금관 5중주 '크리스마스 캐럴'	11.29~12.5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특별한 자연과 만나다

2016 생태특별전시전

어린 시절 해가 지면 들려오던 개구리 울음소리와 밤하늘을 수놓던 반딧불이의 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러나 도시 개발이 이어지며 개구리 울음소리는 차량 경적이, 반딧불이 불빛은 도심의 가로등이 대체하게 되었다. 더 이상 개구리 울음소리도, 반딧불이의 춤도 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화성시의 자연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화성시의 자연생태를 만나다

화성시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아트스페이스에서 '2016 생태특별전시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간척 사업과 급격한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자연환경을 생태자료로 보존하고자 지난 3년간 수집한 3만 여 점의 표본 중 동식물 및 곤충, 어류 표본 210여 점을 선보였다.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는 단순히 표본을 관람하고 끝내는 여타의 전시와는 차별화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숲의 이미지로 조성된 공간 인테리어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오디오 사운드, 전시 공간 사이사이에 마련된 휴게 공간은 마치 진짜 숲 속에 들어와 동물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찰해야 했던 다른 전시와 달리 이곳에서 아이들은 고라니, 삶, 독수리 등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보고 느꼈던 자연생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이접기,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물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전시장 벽면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해 식물류, 어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Zone으로 구성한 이번 전시는 각 생물별 카테고리를 아이덴티티 컬러로 구분하여 아이들이 쉽게 전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숲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전시실에서 하는 생태전시는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이다. 하지만 화성시 생태특별전시전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커다란 나무와 나무를 타고 오르는 청설모, 나뭇가지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다양한 조류, 나무 밑 풀숲에서 먹이를 노리 듯 등을 둥글게 말고 사냥감을 바라보는 삶 등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자연의 한 장면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 생생하다. 나무와 인조잔디로 숲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한 전시장은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표본 관람과 관련 설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더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나뭇잎과 꽃 표본을 통해 각기 다른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며 식물에 대해 배우다 보면 어느새 숲이 끝나고 바닷속 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쿠아리움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어류 전시 공간은 마치 바닷속에서 어류들을 직접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된다. 곤충 Zone 또한 곤충 표본과 함께 대형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그래픽으로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만큼 다양한 공간적 배려가 구석구석 숨어있다.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컬러 배합 이외에도 중앙에 위치한 숲 Zone은 총 3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공간마다 대형 인조나무와 인조잔디,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쿠션을 설치하였고, 인조잔디와 우드 바닥 위에 조류, 포유류 등의 생물 표본을 배치하여 휴게와 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반석산 생태아카데미 무료 운영

전시회와 함께 매주 일요일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반석산 생태아카데미>가 운영되었다. 생태아카데미는 신청접수 이틀 만에 총 8회차 중 6회차까지 마감될 정도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은 “도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동식물을 보며, 화성시의 자연과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품들은 7월에서 8월 유엔아이센터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며, 이후 2018년 개관 예정인 화성시 공룡 자연과학연구센터로 옮겨져 전시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1종 보호구역인 공룡알 화석산지 내 들어서는 화성시 공룡 자연과학연구센터는 국내 최고의 전시, 체험 및 연구시설로 화성시의 교육, 관광, 문화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16
생태특별전시전
두 번째 전시

장소 유엔아이센터 1층 전시실
일정 7월 18일(월)~8월 31일(수)



생태해설사와 함께 하는 반석산 숲 생태 교육

아트스페이스에 2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생태 학습에 앞서 주의사항이 전달되고, 가까운 곳에 독이 있는 식물이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바짝 긴장한다. 선생님과 숲으로 출발한 아이들. 산딸기나무가 보이자 시선이 집중된다. “산딸기는 익지 않았을 때 녹색을 띠어요. 그러나 익으면 동물들의 눈에 잘 띠는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럼 왜 동물들 눈에 띠어야 할까요? 그건 동물이 산딸기를 먹고, 배설하며 산딸기의 종족 번식을 돋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산딸기를 씻어서 나누어준다. 소중한 보물처럼 지켜보던 아이들은 조심스레 산딸기를 입에 넣는다. 열 걸음 남짓 걸었을까? 바닥에 밤꽃이 수도 없이 떨어져 있다. “이게 뭘 까?”라는 질문에 “애벌레” “강아지풀” 등 다양한 대답이 들려온다. 선생님은 여전히 궁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밤꽃과 밤송이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내 눈 밝은 아이 하나가 수로에 빠진 지렁이를 발견하고 소리친다. 우르르 몰려가자 선생님은 성인 지렁이에만 있는 환대(두꺼운 띠)에 대해서 설명한다. 산에서 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운 아이들. 드디어 하산 길에서 독식물인 옻나무를 만났다. 만지지 않아도 옻이 옮을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며 내려온다. 피크닉 정원으로 돌아왔다. 조그만 비닐에 곤충을 담아오라 하니 처음엔 징그럽다며 손도 못 대던 아이들이 어느새 개미, 노래기, 산바퀴, 노린재, 거미 등을 잡아온다. 잡은 곤충을 집에 가져가고 싶지만 “얘들도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을 거야.”라는 선생님의 말에 착하게도 곤충을 돌려보내 준다. 오늘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하나같이 곤충 잡은 얘기를 한다. 역시 몸으로 체험한 게 각인이 잘 되나 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뿌듯해진다.



인문학적 일상을 위하여 병점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전적 정의의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나 사상·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또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문학’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일이란 다채로운 사건들의 연속이고,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경계를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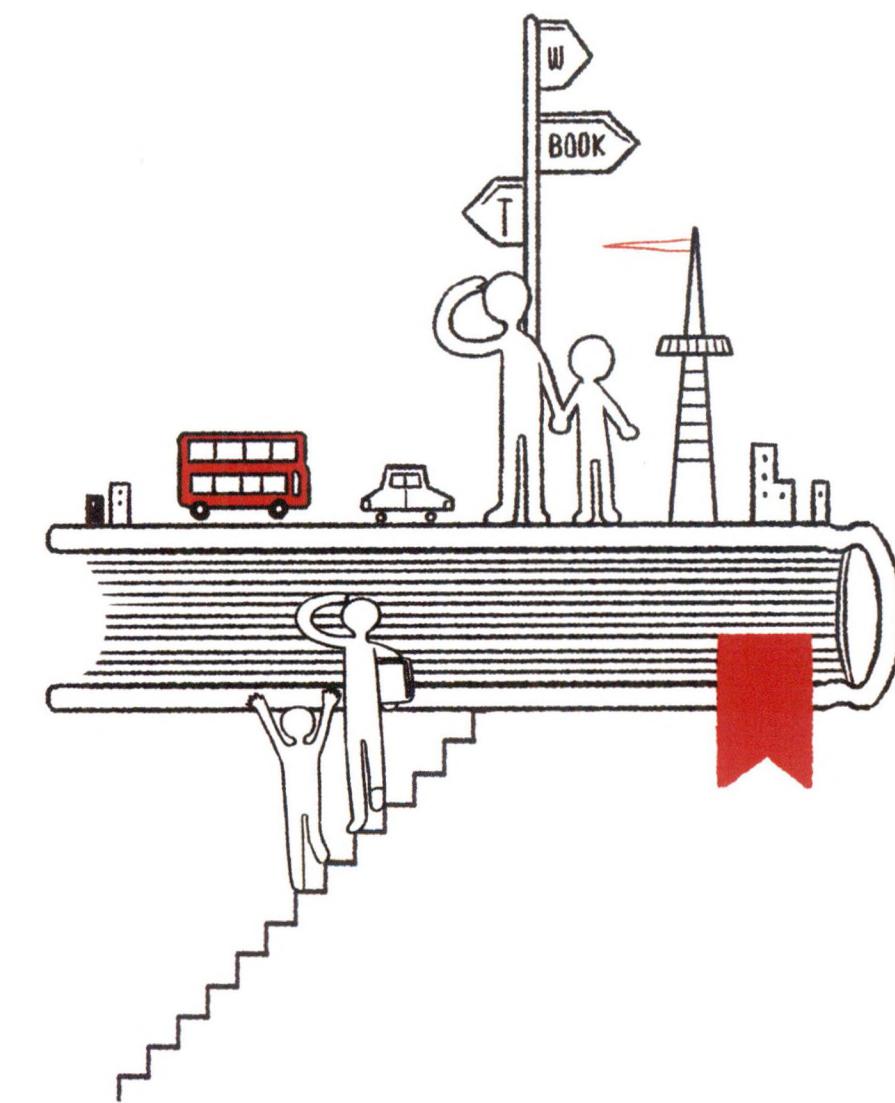
인간의 일이란 다채로운 사건들의 연속이고,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경계를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책과 길과 인문학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클리셰 같지만 좋은 경구이다. 책을 통해 인간사를 들여다보고, 각자의 삶을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즉 도서관이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말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도 충분한 문구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늘 보던 책과 함께 한다. 인문학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멀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책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대중과 인문학 사이에서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역의 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으로 삼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삶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인문학적 자극을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 계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국민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과 관련 장소로의 탐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하



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2013년 120개 관 360회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180개 관 1,080회, 그리고 2015년 280개 관 1,960회 운영으로 성공리 완료되었다. 2016년에는 공공도서관으로 제한하던 자격 조건을 대학도서관까지 확대,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320개 관에서 약 2,800회 운영될 예정이다.

병점도서관과 길 위의 인문학

화성시에서는 병점도서관이 2013년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조 대왕이 꿈꾸던 세상 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 웅·건릉을 포함한 현장 탐방을 총 4회 진행했고, 137명이 참가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영화로 보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영화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는가 하면, 서울 정동 일대의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장소와 영화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총 11회의 프로그램을 263명의 참가자와 함께 했다. 2015년에는 ‘일상을 보는 과학적 시각을 위하여’라는 테마 아래 나무, 공룡, 우주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수목원, 공룡알 화석지 등으로 찾아가는 수업을 총 7회 운영, 193명이 참가하였다. 병점도서관에서 그동안 운영한 <길 위의 인문학>은 주로 영·정조 관련 유적, 천연기념물 제470호인 전곡리 물푸레나무, 제414호 공룡알 화석산지와 같은 동식물 문화재 등 지역의 유형·무형 자원들을 인문학적 사유의 소재로 삼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관련 주제의 책을 전면에 내세워 저자 혹은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거나, 소장 도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내 주변과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되돌아볼 수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지역민들이 이를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관계를 다시, 바라보다

2016년 병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주제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다’이다.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봄으로써 일상과 사회가 형성되는 원리를 들여다보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인이 사랑하는 예술 장르를 통해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사연 등 인문학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한다. 강의는 사진, 미술, 영화, 그리고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의 말미에는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함으로써 개개인이 또 다른 창작자이자 일상의 예술가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진행된 1강 ‘좋은 사진의 비밀’에서는 일상 속에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한 소소한 팁과 함께 마음을 옮기는 사진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고가의 카메라보다 찍는 사람과의 관계와 사연이 좋은 사진의 이유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난 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가족사진이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리워 남몰래 일기처럼 남겼던 내밀한 기록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작의 비밀을 알게 된다. 창작은 이렇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6월 강연에서는 현대미술을 통한 새로운 감각과 사고, 미술을 통해 반영되는 일상들을 살펴보았고 미술관 탐방을 통해 이를 온전히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9월에는 ‘세상을 비추는 영화’와 ‘시대가 녹아든 음악’을 통해 예술과 사회, 그리고 시대 간의 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후속 모임 ‘일상을 창작자로 관계하다 글쓰기 편, 그리기 편’을 통해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문학을 말한다. 곳곳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인문학 도서들도 주제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강연을 듣기만 하고, 책을 읽기만 해서는 복잡 다양하게 이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다각도로 경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인생은 이어진다. 인문학적 사유를 멈추지 말고, 다양한 주제에 나만의 방식으로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것이든– 관계하길 원한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길 위에서 병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상을 비추는 영화 <영화와 가족, 여성, 그리고 청소년>

영화라는 창작물이 가족, 여성 등 사회의 여러 분야와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일시 8월 31일(수) 19시~21시
강사 정민아 (영화평론가, 한신대 겸임교수)
대상 청소년, 일반 30명
신청일 8월 9일(화)

시대가 녹아든 음악 1, 2

음악이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클래식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엿본다.

일시 9월 7일(수) 19시~21시
9월 21일(수) 19시~21시
강사 정윤수 (한신대 교수, 문화평론가)
대상 청소년, 일반 30명
신청일 8월 23일(화)

화양연화 가을 콘체르토 공연 관람

일시 9월 27일(화) 19시~2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강사 정윤수 (한신대 교수, 문화평론가)
대상 청소년, 일반 30명
신청일 8월 23일(화)

프로그램 참여방법

- 각 차시별로 개별 접수
- 병점도서관 ‘홈페이지—문화강좌’ 신청란에서 접수
-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동탄예술시장을 채우는 우리지역 예술가들

예술시장은 더 이상 전공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누구나 창작물이 있다면 가지고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 전업 예술가에서부터 공예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예술시장이라는 '판'에 뛰어들어 우연한 만남을 즐기고, 생각을 교류하며,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예술시장에는 룰이 없다

'담(DAM: Dongtan Art Market)판을 벌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2016년 동탄예술시장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창작가들이 시민과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일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제각각이다. 뺏속까지 예술가인 사람, 뒤늦게 예술적 취미가 생긴 사람, 그리고 집에서 썩히긴 아까운 손재주를 가진 사람까지 예술시장에 참여하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 그저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창작품 또는 대중과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콘텐츠만 있으면 된다. 동탄예술시장에서 만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미술대학 선후배가 모여 청년창업을 한 참여자, 미술을 가르치지만 정작 예술시장에는 전통공예품을 들고 나온 참여자,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오랜 취미생활로 시작한 공예 작업에서 이미 프로의 향기 가 느껴지는 참여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참가자들의 삶에서 재미가 느껴진다.

오랜 취미로 탄생시킨 생활예술품

요즘 예술시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손바느질, 향초, 액세서리 등일 것이다. 재료 구입이나 제작방법이 간단해지고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에 집중한 소비를 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개인의 취향과 용도를 반영하여 직접 만들어 쓰기를 원한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는 생활예술품을 너도 나도 원한다.

동탄 센트럴파크 입구에는 '공간엔들'이라는 공방이 있다. 이름 그대로 이 공간에서는 늘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 공간은 손뜨개와 코바늘, 석고방향제, 플라워까지 다양한 생활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공방이라고 하기엔 규모와 작품 수가 상당하다. 그래서 물어봤다. 이 공간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동탄고등학교 근처에 개인 공부를

'공간엔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예술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방이자 코바늘, 손뜨개, 태팅레이스, 팝아트, 캔버스 조명, 석고방향제, 디퓨저, 프리저브드플라워 등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형 공방이다.

위한 작업실을 내고 취미 삼아 재능기부 형태의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도, 그 재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임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큰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공간을 운영하는 김민아 씨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예술이 직업인 사람도 아니다. 통계물리학을 전공했고, 그와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그저 취미가 뜨개질과 코바늘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10년간 취미로 하던 뜨개질 작품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블로그 닉네임인 '동탄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동탄예술시장에는 2년째 참가하고 있다. 처음엔 삼삼오오 모여 만든 소모임 구성원들의 작품으로 재미 삼아 참가했고, 이번엔 다양한 생활소품들로 '공간엔들'이라는 공방명을 달고 나왔다. 예술시장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생활예술공예라는 틀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다는 그녀와 공방 식구들을 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술시장을 하는 이유를 돌아보게 된다.

체험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조각가의 작업실

'아트센터 웜'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니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예 체험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으니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예술의 향기가 그득한 공방으로 나들이 가보자.

동탄예술시장의 참가자들은 만날수록 새롭다. '아트센터 웜' 역시 그랬다. 단순히 체험공방이라고만 생각하고 찾아간 아트센터 웜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다. 화성시 정남읍에 위치한 2층 벽돌 건물은 2년 전 이준석, 정현숙 씨 부부가 공동 작업 공간이자 체험공방으로 시작한 아트센터이다. 두 부부가 예술을 전공해서인지 건물은 입구 우체통에서부터 직접 만든 인테리어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조금은 한적한 동네에서 정성스레 만든 수공예품을 보니 마치 예술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입구를 들어서니 우측으로 작업실이 보인다. 넓은 공간 곳곳에 놓여 있는 장비와 몇 개의 가마가 보인다. 충고도 은근히 높은 게 영락없는 작업실이다. 이곳을 사용하는 이는 이준석 씨다. 부인과 함께 아트센터 웜을 운영하는 그는 조각을 전공한 작가이다. 작업실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한눈에 멋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2층으로 올라가니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카페인 듯, 작업실인 듯 묘한 분위기의 이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체험공간이다. 부인 정현숙씨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체험교육 담당자이자 도예가이다. 그래서인지 2층 공간은 생활도자가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유리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로 다양하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평소 가족 나들이객과 회사원 단체가 많이 찾는다는 아트센터 웜은 앞으로도 동탄예술시장에서 주민들과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아트센터 웜

여성이여 당당하라,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 당신을 위해

여성비전센터 명사특강 유인경

지난 5월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는 최근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경 기자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한 이번 강연은 유인경 기자의 솔직한 경험담에서 시작하여 '매력적인 사람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라는 주제 아래 유쾌하게 진행되며 화성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자로 나선 사람은 주요 일간지 여성 기자로서는 최초로 정년퇴직을 한 유인경 기자. 최근 ‘매력적인 사람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어서인지 그녀의 특강은 수강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강연은 이미 여기 저기서 소문이 났다. 그래서인지 강연을 하는 시간 외에는 잠시 시간을 내기도 힘들다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문화재단이 요청한 짧은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었다.

순간을 즐겨라

우선 사회인으로서의 한 여성, 그녀의 삶이 궁금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여성이 정년퇴직을 하는 게 흔하지 않다. 그런데 그녀는 그 힘들다는 기자로서의 여성 직장인 생활을 알차게 마무리했다. “마라톤을 완주한 거 같아요. 일등이냐 꼴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을 함께해준 회사에 감사하고, 또 스스로 기특하고 그래요.”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 힘껏 달리기보다 그때그때 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이 모여서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게 마라톤이다. 그녀는 인터뷰 중에도 ‘순간을 즐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것도 그때그때 주어지는 기회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흥미를 가져왔던 생활습관 덕분이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그런 태도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 25년을 열혈 기자로 지내왔기에 휴식을 바랄만도 한데 그녀에게는 잠시 동안의 해독 기간도 필요치 않고, 내일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 보였다. “앞일을 미리 계획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상황을 즐기자고 마음먹는 편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서 다음 레이스를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았다.

여성이 스스로 빛나는 도시, 화성

유인경 기자는 강의를 하러 오는 중 접한 ‘여성이 빛나는 도시’라는 문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전구에 불이 켜져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오요.” 유인경 기자는 여성이 빛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관련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임산부용 주차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하는 등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여성 스스로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감에서 분출하는 빛이 주변도 환하게 비춰줄 거라는 거다. 듣고 보니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것 같다. 원래 사소한 것들은 사소하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행복감마저 빼앗아가기 쉽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를 하나씩 지켜가고 있다. ‘여성이여 당당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특강만 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어차피 개인이 혼자
꼿꼿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어디를 가도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 능력’은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될 것이다.



더라도 어떻게 해야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인지 강연 중에는 동의한다는 박수와 환호가 곳곳에서 자주 터져 나왔다. 또한, 여성의 경우 지식을 습득하면 우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또 양가 부모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성 한 명을 가르치면 네 명을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여성의 대부분이었던 청중을 열광케 했다. 이는 행복함을 느끼는데도 적용이 된다. 그만큼 여성의 행복할 경우 네 명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인경 기자의 강연은 소소한 배려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소소하여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여 무릎을 치게 하는,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말의 연속이었다.

100세 인생을 위한 ABCD

본 강연에 앞서 유인경 기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짧지 않다고 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야말로 45억 년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린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그녀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다. 어차피 개인이 혼자 꿋꿋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어디를 가도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 능력’은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울 것인가. 여기서 그녀가 명강사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명강사가 될 수 있는 조건,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머와 센스는 무대 위의 강연자에게는 절대적인 무기이다. 그녀는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BCD만 알면 된다고 한다. 이게 진짜 ABCD만 알면 되는 걸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기 쉽게 그녀만의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A’ Ask이다. 질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이중 제일 중요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최근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가 이슈 된 바 있다. 앞으로는 10만 건의 판례를 암기한 검사, 600종류 약에 대한 처방 케이스를 모두 기억하는 약사 등 인류가 하는 일 중에서 몇몇은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쉽게 접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일 것이다. 그런 그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라



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한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 그럴 때마다 주변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욕하는 마음에 순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인경은 이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내 주변의 상황은 전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다음은 'B', Believe이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력과 운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조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강렬한 의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역시 ‘마법학교에 들어가는 작은 소년, 해리포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희로애락을 가진 인간의 습성, 그리고 순정을 믿었던 것이다.

세 번째 'C'는 Cheerful, 양명함이다. 이어령은 ‘20세기가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차르트의 시대’라고 말한다. 20세기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진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밝고 경쾌한 모차르트의 음악이 좋아지는 건 우리의 삶이 밝아져서였을까? 아니다. 너무나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벼워지고자 한 것이다. 그만큼 정보는 넘쳐나고, 미래는 불투명하기 짹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그룹 GE의 CEO는 직원들에게 늘 ‘가장 최근에 한 파티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회장은 직원들을 항상 재미있게 해주는 CEO로 존중받고 있다. 이는 결국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높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주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D' 디테일이다. 우리는 음식을 시킬 때 주메뉴를 시키지만, 웬지 사이드 서비스가 없으면 아쉽다. 그만큼 인생에도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양념 같은 요소가 중요한데 많은 이들이 이를 놓친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사에게 하는 아부를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아부는 아첨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첨이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알랑거림이라면, 아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야 말로 흥을 돋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말 한마디로 천 양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칭찬하는 말 한마디로 큰 걸 얻을 수 있다.

강연을 듣고 나니 ‘소통과 공감력’이라는 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친화도시로의 시작이 여성의 행복함에

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만큼 내 주관을 뚜렷이 밝히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조차 판단이 어렵다. 이럴수록 용기를 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나를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심히 배려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더 밝고 경쾌해지지 않을까? 오늘 강의를 듣는 내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게 되었다. 이는 분명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또 나 역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다. 부디 강연장을 떠난 모든 사람 역시도 오늘까지 이 가르침 또는 믿음을 토대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길 바라본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ABCD 법칙

① Ask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통과 공감을 얻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Ask.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한 걸음 쉬어 갈 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회사 생활에서는 꼭 필요하다.

② Believe

믿으세요, 자신도, 타인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③ Cheerful

**양명함을 잃지 마세요,
한 번 뿐인 인생 즐겁게 사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매력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일부러라도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위에 전파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④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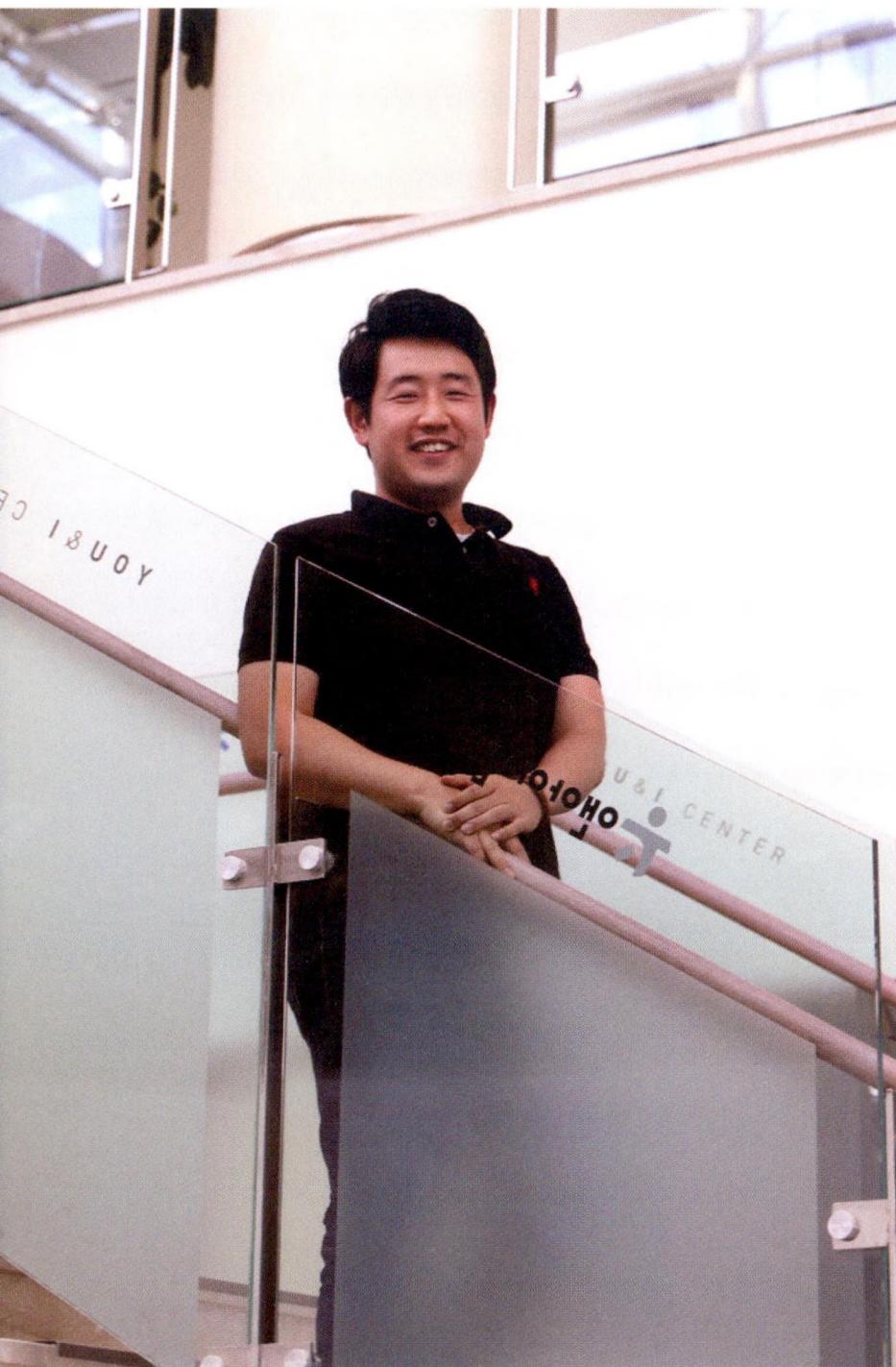
사소한 것이 전체를 만든다.



작은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듯 주위에 인사나 덕담을 아끼지 않고 생활화해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재능 있는 자 위에 즐기는 자 청소년수련관 배재원 대리

화성시문화재단 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은 재능 있는 직원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연일 이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에도 직원들의 열정은 쉬이 식지 않는다.



청소년이라서 더욱 좋다

2011년도 청소년지도사로 입사한 지 어느덧 햅수로 6년. 현재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청소년교육문화프로그램, 과학영재육성, 스키스쿠버, 무박2일 캠프 운영을 맡고 있지만 1~2년에 한 번씩 담당 프로그램이 바뀌는 걸 감안하면 지난 6년 동안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다 한 번쯤 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인연을 맺은 이도 많았다. 동아리 사업을 맡았을 당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쉽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음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재원 대리 역시 대학 시절 드럼으로 밴드부 생활을 했었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수련관에서 처음 만났지만 배재원 대리와 같은 대학에 진학한 후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동아리 선우배로 재회하기도 했다. 간혹 길을 걷다 우연히 함께했던 친구들을 마주칠 때도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업 목표는 무엇을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사업, 그리고 직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청소년들에게 수련관 직원들은 인생을 앞서 살아온 선배가 아니라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 같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

인터뷰 내내 그로부터 느껴지는 장난기 가득한 유쾌함. 그런 그가 2015년 화성시장 표창에 이어 2016년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받은 우수 직원이란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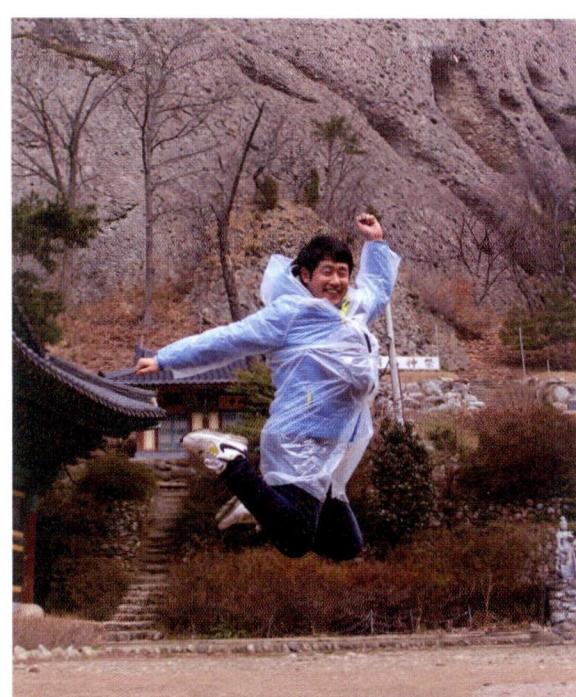
순간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위트 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는 일을 할 때 해야 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어휘, 어투 하나에 감정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재능이 크게 빛을 발했던 건 2013년, 2014년 사내 워크숍 진행을 맡았을 때였다.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어 얼결에 사회를 보게 되었지만 맑은 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사회를 봤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에 대한 열정은 관심에서 시작한다

모든 일은 대부분 관심에서 시작한다. 일 또한 그렇다. 화성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의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재원 대리 역시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로 풀어냈다. 청소년과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 한 <정조대왕 효(孝) 리더십 캠프> <부자 캠프>를 운영하며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 집단, 즉 ‘가족’의 애정과 소중함을 일깨워 줬다. 또 자기 고장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제암리 3.1운동기념 청소년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조상들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전파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도에는 화성시장 표창, 2016년도에는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받았다. 또한 빠르게 도약하는 시대의 변화와 최첨단 전자기기 등장으로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가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요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숨겨져 있는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올바른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에도 관심이 생겨났다.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들이 묻지마 폭행으로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고 한다.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나이이지만 그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야기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도전정신을 증진하는 유익한 수련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체험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스포츠>를 진행하며 접했던 패러글라이딩, 승마, 스키스쿠버 중 스키스쿠버를 특화 시켜 화성시청 지원 공모 사업에 지원한 것이었다. 공모 사업 선정 당시 세월호 참사로 사업 진행을 접어야 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8번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으로 스키스쿠버 전문 강사인 스포츠운영팀 정영환 선생님의 조력 하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필 왜 스키스쿠버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발밑이 보이지 않은 깊은 바닷물 한가운데 놓이면 공포에 싸이게 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속을 직접 경험하면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스키스쿠버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수중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응은 뜨거웠다. 아직은 학업보다 활동, 즐거움, 체험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고 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위험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제4834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참가한 학생들은 세계 최초, 최고의 NITROX TECHNICAL DIVING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오픈워터 자격증 IANTD(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itrox and Technical Divers, inc)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배재원 대리에게서 느껴지는 두 단어는 ‘섬세함’과 ‘유쾌함’이었다. 사업을 기획할 때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그릴 때도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사는 삶이 녹아 있었고, 대화 중 종종 튀어나오는 유머와 위트에는 유쾌함이 숨어있었다. 중구난방으로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수다가 웬지 모를 아쉬움을 자아낸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기운이 전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배재원 대리를 만난 오늘이 그랬고, 그래서 그가 더 궁금해진다.

웹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웹툰

과거 '만화'라는 콘텐츠를 떠올리면 단행본이나 주간지 등 인쇄물 위주로 생각했지만, PC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종이로만 보던 콘텐츠를 모니터로도 볼 수 있게 됐다. 초기 인터넷 만화는 대부분 기존의 종이 만화를 그대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보는 방식도 만화책 형태처럼 좌우로 넘겨보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하지만 다음, 네이버, 야후! 코리아 등의 포털 사이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 만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만화의 형태도 바뀌었다. 가로로 넘겨보는 방식 대신 웹 페이지에 보기 적합한 세로 스크롤 방식이 자리 잡았고, 포털 사이트에서 기존 출판 만화 서비스와 별도로 웹 페이지에 맞춘 만화를 무료로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웹툰'이라고 부르는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편 위주였던 웹툰 시장에 긴 스토리를 가진 장편 웹툰이 등장하면서 연재라는 개념도 자리 잡았다. 장르도 출판 만화보다 다양하다. 무협, 순정, 개그 같은 기존 장르는 물론, 자신의 일상을 일기처럼 만화로 그리는 작품, 만화와 사진을 함께 사용하는 작품, 한 주간의 스포츠 경기 내용을 요약·분석하는 작품 등 기존 출판만화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작품들이 탄생했다. 양질의 작품을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웹툰은 독자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다. 서점이나 인터넷 주문 등으로 출판 만화를 구매해 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간지나 단행본처럼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따로

필요 없다. 댓글을 통해 다른 독자들과 작품 내용에 대해 얘기하며, 단순한 감상을 넘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웹툰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단순히 트래픽을 위한 수단에서 포털 사이트의 주요 콘텐츠로 위상도 바뀌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이동통신사, 콘텐츠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웹툰의 유료화 정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화 미리 보기 방식이나 연재가 끝난 작품을 유료로 전환해 둑어서 판매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 됐으며, 여기에 유료 웹툰을 전면에 내세운 전문 웹툰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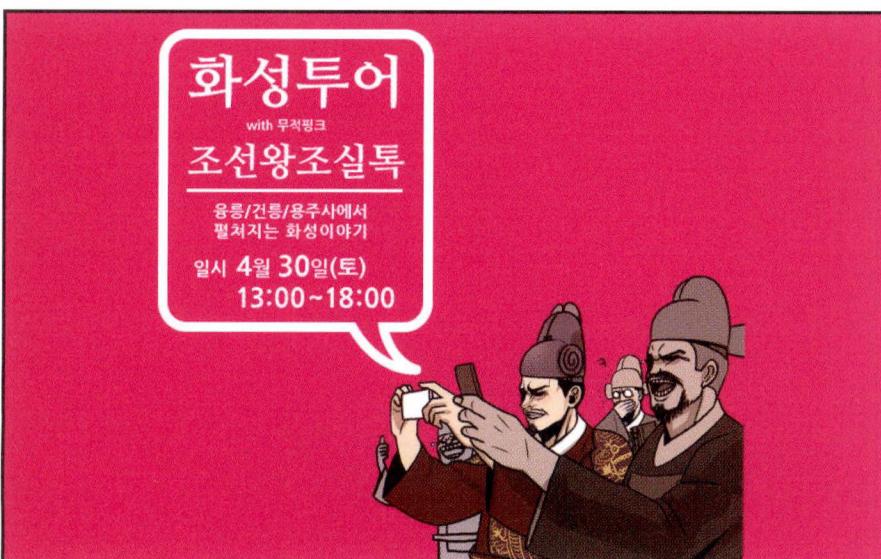
이러한 웹툰은 단순히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 각종 문화 행사를 주도하거나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유명 웹툰 작가가 직접 오프라인 강연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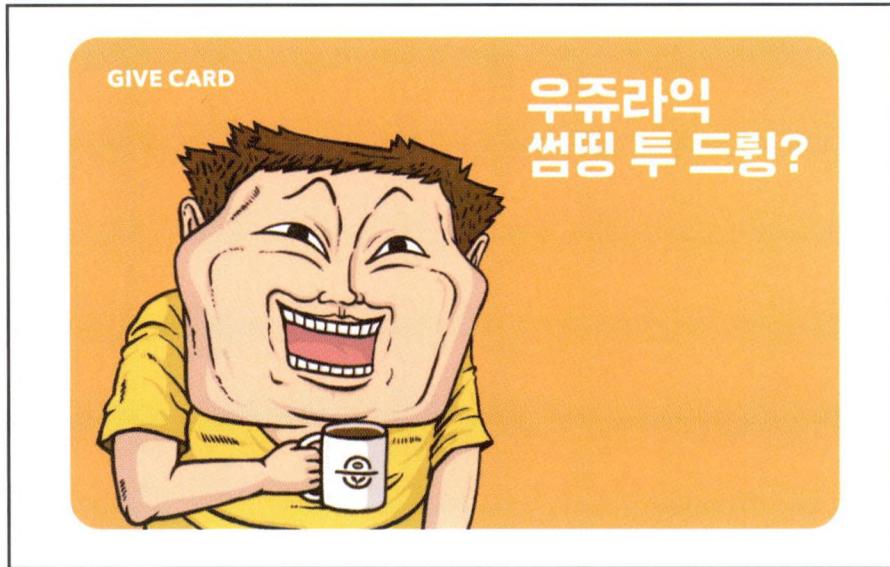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용·건릉, 용주사 등 화성의 대표 명소를 답사하는 행사에서 네이버 웹툰 <조선왕조실록>의 작가 무적핑크(변지민)와 함께 <화성투어 with 조선왕조실록 무적핑크>를 기획해 진행한 바 있다. 무적핑크의 작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정사(正史)와 이밖에 야사(野史)를 바탕으로, 역사 속 인물이 마치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처럼 구성해 역사적 사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이 즐겨보는 만큼 문화 유적 답사라는, 자칫 젊은 세대가 따분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히 명소를 답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적핑크 작가와의 토크쇼를 통해 실록이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등과 함께 화성의 역사 이야기를 작가와 함께 재조명했다. 역사 이야기가 국사책을 벗어나 웹툰으로, 그리고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웹툰은 최근 홍보나 마케팅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독자에게 익숙한 웹툰을 바탕으로 홍보하려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장





커피빈 기부 캠페인에 동침한 웹툰〈마음의 소리〉

점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기업, 지역 명소를 알리려는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소개하려는 정부 부처,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 중이다. 네이버의 경우 이를 ‘브랜드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연재 웹툰과 잘 융화시켜 독자들의 거부감을 줄였다. 이러한 홍보 웹툰은 작가의 수익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기존 출판 만화의 경우 원고료 정도가 수익의 전부였지만, 웹툰은 원고료뿐만 아니라 유료화, 홍보 웹툰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유명 작가가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다르게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그림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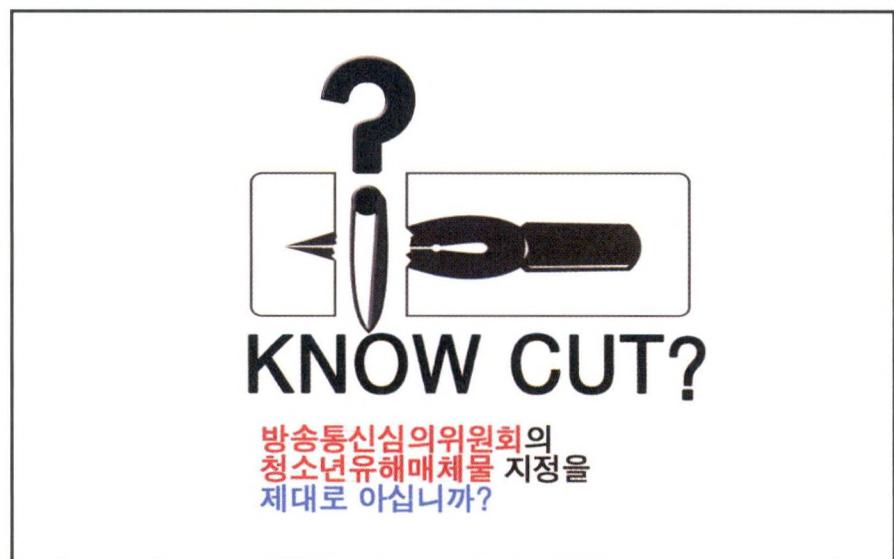
웹툰으로 부활한 출판 만화

웹툰을 통해 기존에 등장했던 출판 만화가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국내 출판 만화 시장을 어렵게 했던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불법 스캔 만화다. 출판 만화를 스캐너로 복사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이를 불법 유통하는 일이 성행했다. 만화책을 사는 사람이 적으니 출판한 책은 팔리지 않았고, 출판사와 작가 역시 어려워져 작품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웹툰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과거에 내놓았던 작품을 다시 연재하는 것은 물론, 못다한 연재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당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봤던 사람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신영우 작가의 키드갱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다.

사회 이슈를 다룬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 이슈를 다루는 웹툰도 등장했다. 웹툰은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인 만큼 다양한 사회 이슈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을 위해 여러 작가가 참여해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힘내요 일본!’ 캠페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릴레이 웹툰은 물론, 웹툰 규제에 대응해 자신의 연재 작품 말미에 반대 메시지를 담는 노컷 캠페인 등 웹툰을 통해 사회 이슈를 알리고 직접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회 이슈를 직접 웹툰에 담는 경우도 있다. 해츨링(김양수) 작가의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청소년 보호법(셧다운제), 주택법(중간 소음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 등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일들을 작품 소재로 다뤄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한다. 최규석 작가의 〈송곳〉은 대형 마트 까르푸의 부당해고 지시에 대항했던 노동조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자 문제 같은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음지에서 성행했던 성인 만화가 웹툰을 통해 양자로 나오기도 했다.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던 성인 만화가 올바른 ‘성인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일부 유료 웹툰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성인용 웹툰을 다루게 됐다. 하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도 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로 취급받아 차단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 포털 사이트의 창작 웹툰 게시판에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게시물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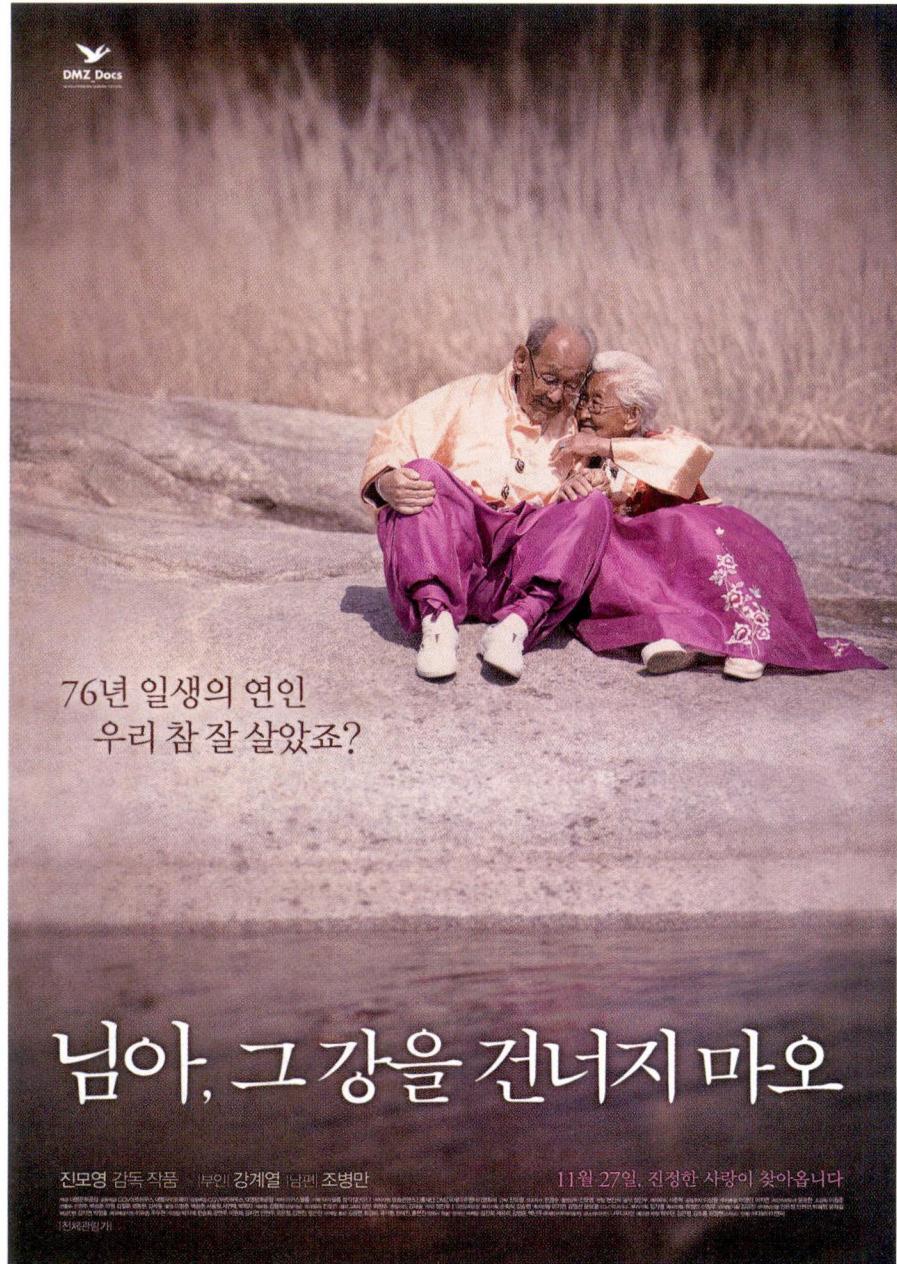
여러 웹툰 작가가 참여한 ‘노컷 캠페인’

웹툰은 아직도 진화 중

웹툰은 출판 만화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근성을 통해 세상의 소식이나 사회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는 등 기존 출판 만화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까지 진출한 것은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캐릭터 사업 등으로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 웹 페이지 구현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기존 종이 매체와 다른 표현 방식이나 스토리 전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작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적이며 파급력이 큰 매체인 만큼 지나친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는 작은 영화관이 좋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올해 5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제69회 칸영화제에는 다수의 국내 영화들이 초청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는 국내 개봉 첫날 28만 명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였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은 국산영화 중 흔치 않게 20세기폭스에서 배급하며 현재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박영주 감독의 <1킬로그램>과 윤재호 감독의 <마담B> <히치하이커>와 같은 단편 독립영화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영주 감독의 <1킬로그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졸업 작품으로 학생 단편영화 중심의 국제경쟁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 부분에 초청되었으며, 윤재호 감독의 두 작품 <마담B>와 <히치하이커>는 각각 칸영화제 감독주간 단편 부문에, ACID(프랑스 장편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되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제 기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조명 받으며 수많은 기사에 오르내렸던 상업영화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관심과 조명, 이것이 독립영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 독립영화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독립영화는 외국에서 정의되는 독립영화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국내 독립영화는 한국 영화의 정치·경제학에서 탈피하거나 대항하려는 움직임, 또는 그것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가리키고 있다. 즉 독립

영화에 있어 독립성이란 일차적으로 지배적인 영화에 관철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논리에서 독립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배적인 영화의 정치·경제학에 맞서는 영화적 실천을 뜻한다.(영화 미학과 비평 입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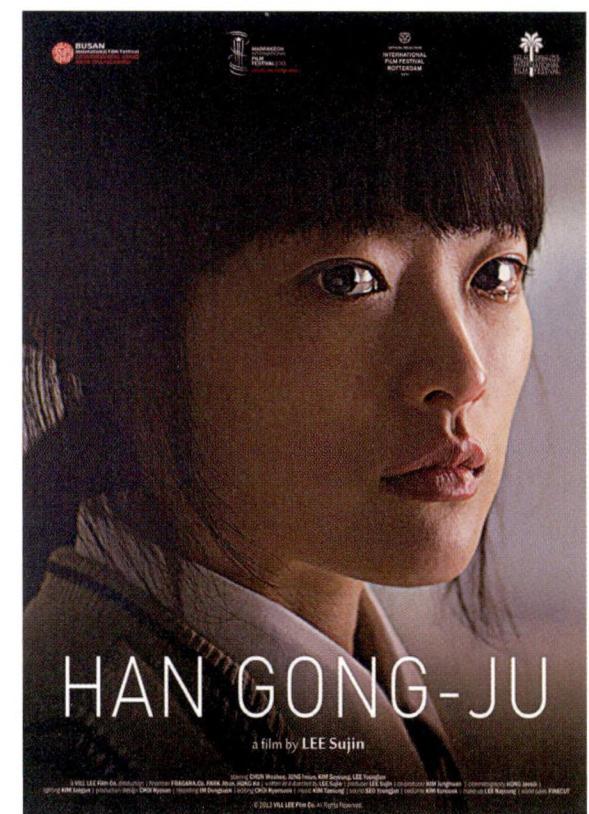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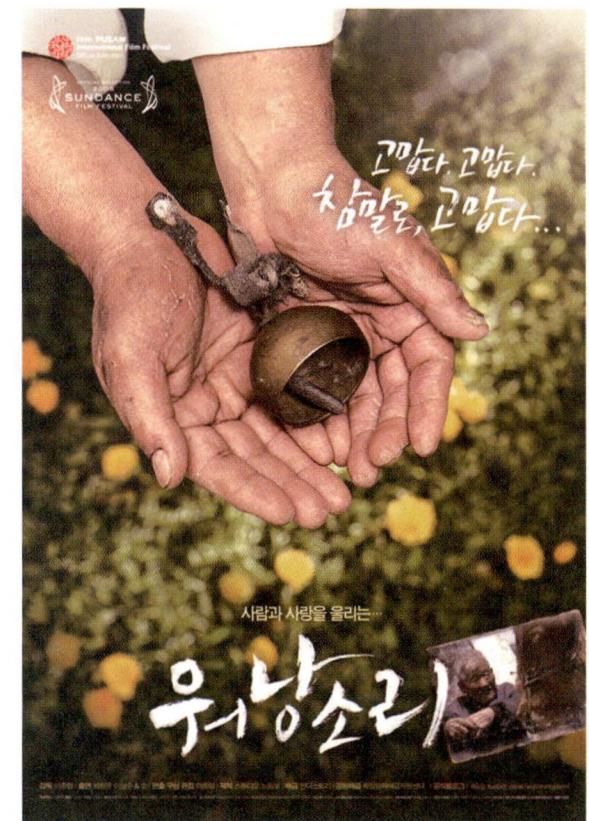
1970년대 이후 시작된 한국의 독립영화는 퇴행적인 기준 영화에 반하며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화 열기는 독립영화의 활동을 보다 정치적이거나 현실 밀착적으로 변모시켰다. 이 시기에 제작된 김동원의 <상계동 올림픽(1988)>은 한국 다큐멘터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이 당시의 독립영화는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실천적으로 다가갔으며, 미학적 기준은 선동·선정성이었다.(한국 영화 씷김, 1995) 하지만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비제도권 영화는 1990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등장, 경제적 풍요 등의 문화적 급변으로 인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영화계 진출로 인해 상업영화가 주류를 이루며 독립영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2009년 <워낭소리>가 누적 관람객 293만 명의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독립영화계에 새로운 봄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누적 관람객 480만 명을 달성하며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역대 72위의 관객 수를 기록하는 이면을 일으킨다.

독립영화의 관객 수가 만 명이 넘는다면 그 영

화는 흥행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최근 개봉한 <소셜포비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한공주> 등의 누적 관객 20만 명 돌파를 두고 독립영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민낯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개봉된 수많은 국내 다양성 영화 중에서 만 명 이상이 본 영화는 186작품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개봉한 제작비 10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 163편 중 가장 흥행한 영화의 관객 수는 250,402명인 반면 가장 적은 관객 수는 1명이라는 수치도 확인되고 있다. 즉 독립영화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장족의 발전이라는 껌데기 속에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독립영화는 관객과의 소통을 만들어 가는 것과 제작비의 환수를 통해 재생산의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지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거침없는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영화계에서 유통 및 수익구조, 배급으로부터 소외된 채 그들만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첫걸음, 작은 영화관 운영

문화의 다양성은 얼마만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사회에 표출되었는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 나라의 문화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독립영화는 우리 주변은 물론 사회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취향들을 담아내기도 하고,



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화 수요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영화산업 전반의 영향력을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 수준 향상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립영화는 현재 매우 다층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모를 속앓이 중이다.

독립영화의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배급, 즉 상영관 확보의 어려움이다. 2016년 현재 국내에는 약 100여 곳의 독립영화 상영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전국 곳곳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문화관광체육부 등의 지원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영화 상영관)'과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성 영화 전용 영화관 'G 시네마'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독립영화 대신 일반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대다수라 실질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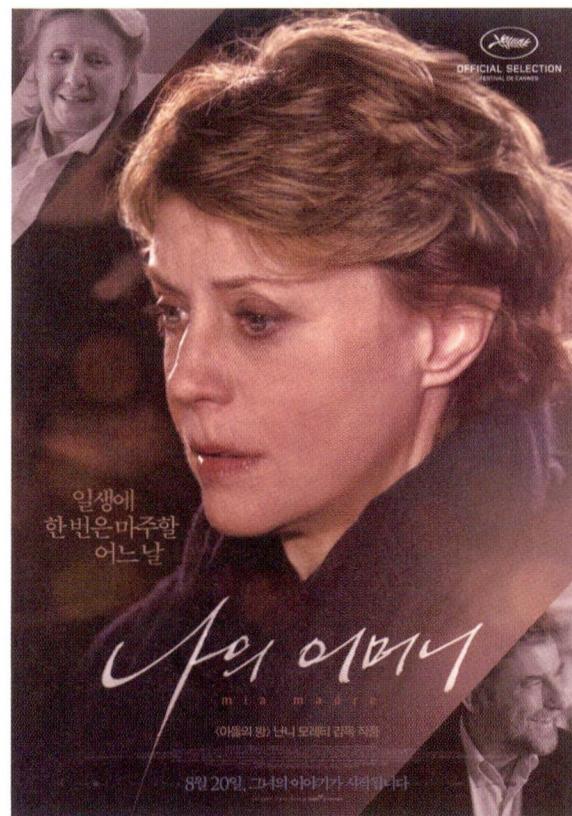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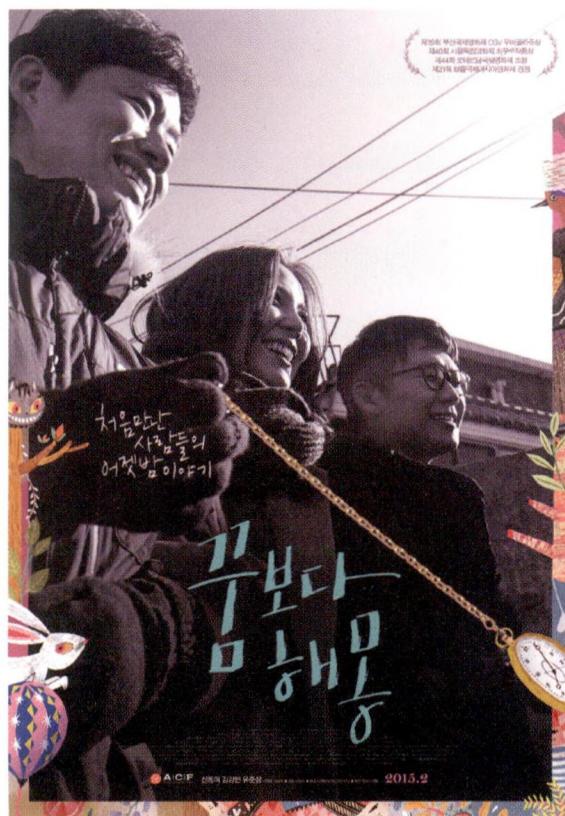
로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상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OGV에서 운영하는 '아트하우스' 18개 관, 롯데시네마의 '아르떼 클래식' 9개 관, 경기 'G 시네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메가박스 3개 관을 합치면 멀티플렉스에서 운영하는 독립영화관은 30개 관으로 전체 독립영화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즉 독립영화가 관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흥행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멀티플렉스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독립영화의 경우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제2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엔 독립영화 시장도 점차 대형 배급사에게 잠식되어 가면서 극히 일부 독립영화만이 다수의 개봉관을 확보하는 등 독립영화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립영화를 만날 방법은 독립영화 전용관과 영화제, 비극장 상영회, 공중파·케이블 등의 방송, DVD, 인터넷·모바일, 해외 배급 등 다

양하다. 이 중에서 관객들이 가장 먼저 독립영화를 만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은 독립영화 전용관이다. 하지만 관객과의 일상적인 소통이 중요한 독립영화의 성격을 반영한 이 공간 역시 배급사의 스크린 독점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독립영화의 지위 향상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전용관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독립영화 전용관은 100여 곳 중 서울이 32개 관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에도 G 시네마와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9개의 전용관이 있지만, 화성시에는 아직 독립영화 전용관이 없다. 인근 지역인 수원시에 2개 관, 안산·오산에 각 1개 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접근성으로 볼 때 여전히 화성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역시 화성시는 3개로 인근 수원시가 8개, 안산시가 6개인데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공간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립영화 전용관은 관객들과의 지속적인 커뮤





영투기 '영화人초대석'

니케이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배급과 관객들의 볼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단순한 상영 공간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담보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성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작품들을 발견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독립영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 화성시문화재단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은 독립영화 전용관의 원초적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신이 몰랐던 그곳,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은 독립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독립영화를 화성시민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예술영화를 테마별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무료 상영함으로써 상업 영화관과는 다른 산유화극장만의 차별성을 갖추고자 한다. 2016년 상영되는 영화는 <악인은 너무 많다> <악인은 살아 있다> 등 다수의 독립영화를 제작한 김희근 감독이 직접 선정했다. 개관작인 <영투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 시대 슬픈 청년들의 자화상을 담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끈 작품이며, 7월 상영 예정작인 <꿈보다 해몽>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무너뜨린 독특한 형식의 영화로 출연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수상작들과 함께 독립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슬로우 웨스트> <나의 어머니>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영화 관람 후 진행되는 '영화人초대석' 코너는 영화감독, 출연배우, 전문 기자 및 평론가를 초청해

영화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지난 6월 11일에는 <영투기>에서 형욱 역을 맡은 영화배우 김준배가 참석했으며, 25일에는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는 독립영화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영화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아리는 상영작 관람 후에 진행되는 영화 관련 토론 및 발표의 시간에서 영화 감독, 배우, 평론가들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독립영화 촬영장 견학, 영화제 기행,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편영화 촬영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능동적인 예술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상영작 리스트

순번	상영 일자	영화명	장르	감독
1	6.11	영투기	액션, 드라마	엄태화
2	6.25	족구왕	드라마, 코미디	우문기
3	7.9	거인	드라마	김태용
4	7.23	꿈보다 해몽	드라마, 코미디	이광국
5	8.13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드라마,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6	8.27	말할 수 없는 비밀	멜로 로맨스	주걸륜
7	9.8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	단편	-
8	9.22	소년 달리다	다큐	강석필
9	10.8	나의 어머니	드라마	난니 모레티
10	10.22	슬로우 웨스트	서부 액션	존 맥클린
11	11.12	러브 앤 머시	음악	빌 포래드
12	11.26	이민자	드라마, 미스터리	제임스 그레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타리안도 반한 화성시 전곡항, 그리고 뱃놀이 축제

외국인 초청 관광 패투어



1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국제로타리 세계대회’가 지난 5월 일산 KINTEX에서 열렸다. 1년에 한 번, 각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로타리 국제대회는 ‘초아의 봉사’라는 로타리의 가치 아래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로타리안들이 로타리 정신과 지식을 공유하는 친선의 한마당으로,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는 198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였다. 이에 화성시는 다수의 글로벌 리더가 참가하는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를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화성시의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그리고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에 맞춰 외국인 초청 관광 패투어를 진행했다.



DAY

1

개막식을 하루 앞둔 5월 27일, 일산 KINTEX에는 국제로타리 세계대회를 찾아온 세계 각국의 로타리안들이 국내 주요 관광지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행사장에는 어느덧 사람들이 봄비게 되었고 각 부스는 한국의 전통복장,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내세운 이벤트와 퍼레이드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렸다. 경기도 통합부스에서 외국인 관광 패투어를 홍보한 화성시 또한 다음날 있을 패투어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다국어 홍보물을 준비하고, 영어능통자를 선발해 화성시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는가 하면 경기관광공사 협의하에 패투어 홍보 물품과 데스크를 부스 전면에 배치하며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다. 덕분에 모집을 시작한 지 채 5시간이 되지 않아 애초 목표했던 인원수의 2배가 넘어 참가자 모집을 조기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의 개막식이 있었던 5월 28일, 10시에 진행된 개막식이 끝나자 KINTEX 곳곳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로타리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같은 시간 화성시문화재단은 곧 있을 화성시 관광 패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가자 명단을 체크하고, 행사에 쓰일 물품과 기념품을 세심하게 챙기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1시가 되자 전날 참가 신청을 한 로타리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화성시 관광 패투어라고 적힌 인솔깃발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DAY

2

PM 1:00

총 9개국, 24명의 로타리안과 화성시문화재단 직원, 그리고 오늘 하루 패트루어를 이끌어줄 가이드 선생님을 태운 버스가 일산 KINTEX를 떠나 전곡항으로 향했다. “우리는 지금 전곡항, 특별한 곳으로 향하는 중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된 화성시 관광 패트루어. 오랜만에 타본 45인승 버스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수학여행을 떠나기라도 하듯 마음이 설렌다. 패트루어의 대상은 외국인이다.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사전에 공부해온 한국의 역사와 화성시의 비경, 관광유적지, 그리고 오늘 방문하는 해양 페스티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전곡항으로 향하는 길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룡알 화석산지를 다같이 보고, 남양성모성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바다의 향기가 풍겨온다. 그런데 3시 요트 탑승을 앞두고 길이 조금 막힌다. 여기저기서 “우리 3시에 요트 탄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거의 3시인데...”라는 말이 들려온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다. 하지만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요트를 놓칠 수가 없다. 문화재단 측은 전곡항 페스티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가이드 선생님은 특유의 유머와 편안함으로 참가들을 안심시킨다. 거기에 더해 오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님 역시 순간을 기지를 발휘하여 전곡항을 향해 달려준다.



PM 3:00



드디어 도착한 전곡항. 전곡항이 이렇게도 넓었던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선착장까지 걸어, 아니 뛰어 가려니 눈앞이 깜깜하다. 주최 측은 둘째 치고 참가자들보고 뛰라 하기가 여간 미안한 게 아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참가자들이 뛴다. 틈틈이 조성되어 있는 꽃과 전시를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곧 눈앞에 엄청나게 큰 요트가 보인다. 생전 타본 적이 있을까 싶은 요트를 보고 놀랄 새도 없이 일단은 요트에 몸을 실어본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탄성. 좋아하는 참가자들을 보니 갑자기 어제오늘 전곡항에 이르기까지 마음 졸이며 준비했던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다. 요트 위에서 보낸 40여 분. 누군가는 뱃머리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2층 데크에 올라가 전경을 즐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외국인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서쪽, 즉 서해라고 알려준다. 동해에 비해 덜 알려져 겨우뚱하는 사람에게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얘기하니 금세 알아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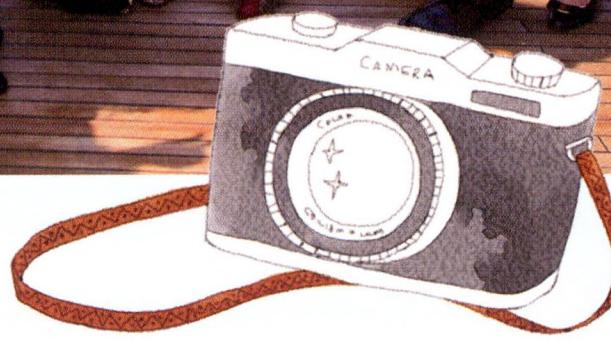
PM 4:00

요트 탑승으로 생겨난 기대감이 다음 프로그램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화창한 날씨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일까. 뱃놀이 축제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우리는 안전과 원활한 체험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움직이기로 한다. 첫 번째 그룹이 한국의 전통 부채를 만드는 동안 또 다른 그룹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전통 인형 방향제를 만든다. 그리고 몇몇은 바다를 마주하고 앉아 여유를 즐긴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정성스레 만들고 있는 모습이 여간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

PM 5:00

오후 5시,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가 했지만 뜨거운 한낮의 볶에서 열심히 즐긴 텁텁한 식당을 향하는 발걸음이 즐거워진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과 홍합탕, 그리고 새우튀김이다. 비빔밥은 이미 맛과 건강이 보장되는 세계적인 요리로 누구 하나 싫어하는 이가 없다. 홍합탕 역시 조리법이 다를 뿐 세계각지에서 즐겨먹는 음식이기에 인기가 좋다. 하지만 오늘 저녁 메뉴의 꽃은 새우튀김. 일반 식당에서 먹는 새우튀김과 다르게 항구에서 바로 수급된 신선한 새우로 조리했기에 그 맛이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이 훌륭하다. 겨우 4시간 남짓 함께했을 뿐인데 식사 자리에서는 수다가 이어진다. 식사가 끝나자 감사히 잘 먹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맛있게 식사를 즐겨주는 모습만 봐도 괜히 흐뭇하다.





PM 6:00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 어느덧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아쉬움이 많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버스에 몸을 싣는다. 주최 측은 육체적으로 조금은 피로했을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했던 달콤한 간식을 나눠준다. 참가자들 역시 세심한 배려에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이다. 가이드 선생님은 참가자들에게 주최 측을 향한 박수를 끌어낸다. 조금은 쑥스러워하는 문화재단 직원을 향해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하루는 마무리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참가자들은 고단한지 잠을 청한다. 그리고 진짜 헤어짐의 순간이 왔을 때 소소한 허그를 전한다. 훌륭한 장소에 다녀와서 기쁘고, 유쾌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단다. 풍경이 너무 매력적이라 평온해서 좋다는 참가자와 가족들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참가자,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알 수 있었다는 참가자 모두가입을 모아 오늘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한다. 그 말에 모든 일정을 준비, 운영한 주최 측의 피로는 스르륵 녹아든다.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데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한 게 없다. 그래서 반나절 이상 함께 보낸 온 오늘의 만남은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로타리안에게 화성시를 알린다’라는 모토로 시작한 오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알리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화성시의 문화자원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참여한 외국인 모두가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많은 추억 속에 화성시를 담아 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푸른 내음과 문학의 향기가 가득했던 노작홍사용문학관 문학현장답사

노작홍사용문학관 문학현장답사는 문예 강좌를 통해 교실에서만 만났던 기념비적인 문학 작품 속 현장과 작가의 발자취를 직접 찾아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동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마을

황순원의 소나기마을로 가는 길은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그래서인지 도심을 벗어난 감흥이 더욱 크다. 소나기마을에 도착하니 어린 시절 읽었던『소나기』속의 장면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소나기』속 소년과 소녀가 함께 건너던 징검다리와 셋다리 개울, 그리고 수수단 모양을 형상화한 문학관까지 소나기마을 곳곳에는 문학과 그 배경이 숨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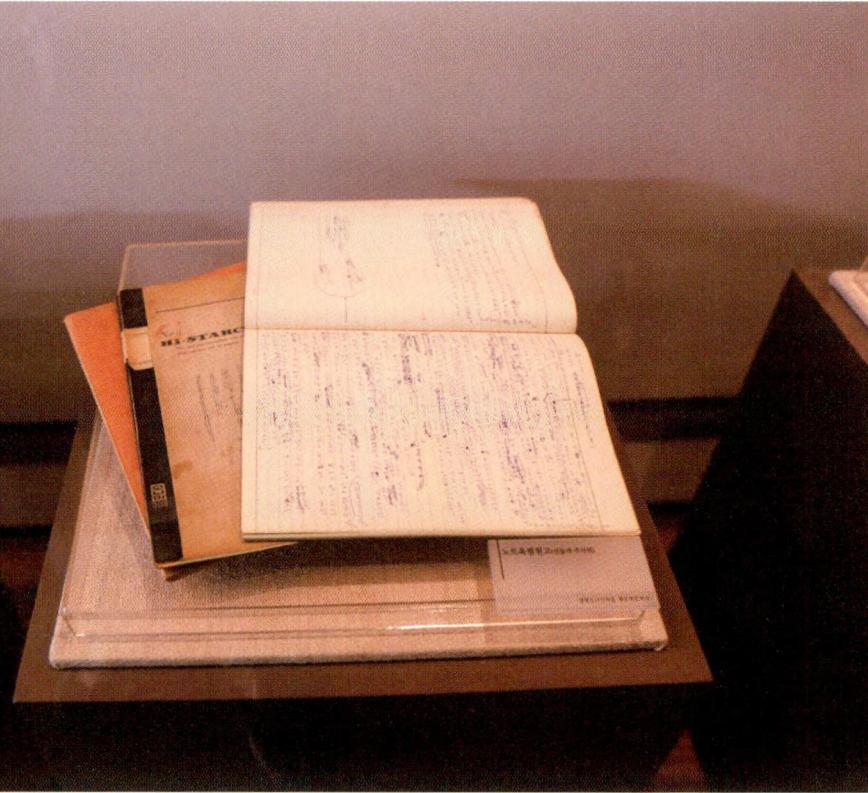
문학관으로 들어서면 황순원 홀을 지나 황순원 선생의 삶과 인생을 조명한 전시실이 보인다. 홍사용문학관 담사팀은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실사이즈로 재현된 황순원 선생의 집필공간과 소장품, 유품들을 살펴본다. 문화해설사는 황순원의 문학적 업적 외에도 선생의 일상과 성품,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까지 들려준다. 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영상실로 향했다. 영상실은『소나기』속 소년, 소녀가 공부했던 옛날 교실을 재현한 공간으로, 담사팀은 작은 책상과 걸상에 몸을 구겨 넣고

도 옛 추억이 돋는지 희희낙락한다. 소설을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소나기'가 상영되자 담사팀은 주말 만화영화에 집중하는 아이들처럼 숨죽이고 영상에 빠져든다. 소나기가 오는 장면에서는 조명과 음향이 가미되어 마치 비를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짧은 영상을 보고 문학관을 빠져나오니 소나기광장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소나기』속 배경이 더욱 눈에 들어온다. 자유 시간을 틈타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가 하면 황순원 선생의 대표작들을 음미할 수 있는 산책로를 걸어보기도 한다. 문학관 층은 소나기광장에 다시 모인 담사팀을 위해 황순원문학관의 하이라이트인 인공 소나기를 뿐려준다. 여기저기서 환호가 들리고, 우린 이렇게 문학관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잔아문학박물관

다음 일정인 잔아문학박물관으로 가는 길, 아침부터 쏟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밥집으로 향한다. 40명이 넘는 인원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위해 홍사용문학관팀이 사전에 맛본 두부집은 문학관 회원들의 입맛에 딱이다. 문학의 향기에 취해 또는 따스한 햇살에 취해 점심을 먹으며 잠깐의 나른함을 즐겨본다.

허기진 배가 달래지자 또다시 기운이 넘친다. 황순원문학관에서 머지않



따스한 햇살과 적당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5월, 노작홍사용문학관 상변기 문학현장답사가 진행되었다. 국민소설『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고결한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소나기마을, 세계적인 문호들과 국내 작고 문인들의 작품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는 잔아문학박물관을 방문하며 문학의 향기에 심취했던 그날을 따라가 보자.

은 곳에 있는 잔아문학박물관은 입구가 무척이나 아름답다. 잔아문학 박물관은 소설가 김용만이 사재를 털어 운영하는 곳으로 소설과 시집의 초판본, 희귀본뿐만 아니라 테라코타로 제작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흉상을 전시하고 있다. 소설가 김용만이 오늘의 전시 관람을 도왔다. 손수 이 곳을 조성하고 운영해서 애정이 남다를 뿐 아니라 지난 문학역사 한편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모든 이야기가 생생했다. 작고한 국내 작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호들의 작품세계와 인생에 대해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가 책으로만 접했던 문학이 극히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시되어 있는 모든 작가들의 작품과 인생관을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작가들을 위주로 설명이 이어진다. 설명을 듣다보니 푸슈킨, 세르반테스, 카프카, 괴테, 도스토예프스키 등 괜히 그들과 친해진 느낌이 든다.

박물관 관람에 이어 김용만 선생의 특강이 이어졌다. 소설가 김용만은 그동안 세계 100여 국가를 다니면서 인류의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문호들의 기념관을 답사하고, 작가론과 작품론을 ‘서정시학’에 3년 동안 연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세계문학관 기행』으로 출간하여 한국 지성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밀’과 ‘글’을 구사해야 남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되는 ‘문학적 언어와 문체미학’을 어떻게 체득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졌다.

다. 짧은 강의가 끝나고 나니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었다. 조금은 늦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양평군립미술관

오늘의 마지막 장소, 양평군립미술관에 도착했다. 양평은 인구비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모여 사는 고장이라고 한다. 2011년 개관한 양평군립미술관은 그 규모와 전시 작품이 상당하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예술을 즐기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는 곳이다. 답사팀은 도슨트의 안내를 받아 전시를 관람한다. 평면작품, 입체작품뿐만 아니라 체험이 가능한 작품까지 예술작품이 미술관 곳곳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 스쳐 지나가는 길이라도 시선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게 1시간여 동안 작품을 관람하고 미술관 곳곳을 둘러봤다.

문득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예술혼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혼자 찾아오기 어려운 장소인 만큼 오늘의 문학현장답사 프로그램이 정말로 고맙다. 더불어 사전답사를 통해 일정, 동선, 맛있는 식사까지 미리 꼼꼼히 챙긴 홍사용문학관팀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피톤치드 산책 떠나보세요”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화성시 산 ①

서해안을 끼고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화성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8개의 명산들이 위치한 곳이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하다면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녹음이 가득한 산길로 산책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삼림 산책로를 갖춘 화성시 명산들

푸른 하늘, 흰 구름, 녹음이 우거진 나무, 자작자작 훑 밟는 소리. 도심에서 살다 보면 문뜩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때가 있다. 차가 달리는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 망설일 필요는 없다. 조금만 뒤돌아보면 도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자연이 숨 쉬고 있다. 우리나라 남북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육지와 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성시에 위치한 산지들은 해발고도가 낮은 저산성의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가벼운 산책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하다. 문뜩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혹은 주말 아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나서고 싶다면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서보자. 산을 오르면 피톤치드 가득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서봉산과 초록산 등의 산지들은 노약자도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완만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화성지역의 명산〉



- ▲태행산(비봉면) 292.0m, 등산코스
- ▲건달산(봉담읍) 336.0m, 민간신앙지, 야생화군락지, 등산코스
- ▲서봉산(정남면) 249.0m, 등산코스, 산림욕장
- ▲칠보산(매송면) 238.8m, 용화사, 등산코스
- ▲초록산(양감면) 119.1m, 등산코스, 산림욕장
- ▲무봉산(동탄면) 255.8m, 봉림사, 등산코스
- ▲삼봉산(봉담읍) 268.2m, 등산코스
- ▲태봉산(정남면) 223.0m, 봉현사, 등산코스

건달산

원시림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며 햇살이 비추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해 있다. 화성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건달산은 맑은 날에는 정상에서 서해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섬들과 인천 앞바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나무가 우거진 푸른 숲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탁 트인 시야로 보이는 파란 바다는 정신적 만족감을 고양시켜 준다.

건달산의 매력은 아름다운 전경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원시림에 가까울 정도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소쩍새, 솔부엉이, 두꺼비, 맹꽁이, 반딧불이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조용히 숲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자. 소쩍새가 우는 소리, 두꺼비와 맹꽁이가 우는 소리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섞여 멀리서 들려오고 운이 좋다면 직접 눈으로도 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에서 보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는 것도 이 산을 오르는 즐거움이다.

서봉산

숲 속 생물을 만나는 즐거움



매연이 가득한 도심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톤치드 가득한 자연의 향기가 그리워진다. 봉황이 깃들어 있다는 서봉산은 울창한 나무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무성하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낮은 고도로 가족 등산로로 인기가 많은 서봉산은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울창한 나무만큼 청량한 공기가 가득한 이곳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한 시간이면 노약자도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서해바다와 수원시, 오산시 등이 한눈에 보여 탁 트인 시야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서봉산의 진짜 매력은 바로 다양한 식물 군락지와 생물들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다 계곡이 있어 참나무류와 붉나무, 느티나무, 때죽나무, 칡 등의 자생식물과 가재, 옆새우, 어치, 멧비둘기, 멧토끼 등의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산길을 걷다 만나는 작은 생물들과 식물 군락지는 서봉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초록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가족 힐링 코스



주말이면 나들이를 가자고 조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초록산으로 가족 등반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초록산은 풀이 무성해 늘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될 정도로 울창한 숲을 자랑한다. 화성의 명산 중 높이가 가장 낮은 초록산은 정상에 올라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여 어린 자녀를 동반한 산책코스로 안성맞춤. 산림욕장이 있어 공기가 맑고 깨끗한데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주로 가족 동반 및 각종 단체의 야유회, 어린이의 소풍장소 등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은 곳인만큼 앉아서 쉴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이 밖에도 풋살구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의 스포츠 레저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휴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맑고 시원한 숲 속 공기와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고, 즐거운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초록산은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산책로로 손꼽히며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

건달산 코스

저수지 ▶ 건불사 ▶ 분기점 ▶ 쉼터 ▶ 건달산 정상
▶ 세곡리 (총 3.3km)

서봉산 코스

입구 ▶ 운동시설1 ▶ 운동시설2 ▶ 그늘막 ▶ 약수터
▶ 전망대 ▶ 약수터 ▶ 성녀루이제의 집 (총 3.9km)

초록산 코스

산림욕장 주차장 ▶ 아래 팔각정 ▶ 위 팔각정 ▶ 초록산 정상 ▶ 체육공원 ▶ 아래 팔각정 ▶ 철쭉동산 ▶ 산림욕장 ▶ 산림욕장 주차장 (총 6.1km)

화성시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스낵콘서트'

맛있는 공연 다 함께 즐기기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공연을 보여드릴 순 없을까?
영화관 하나 없는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공연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화성시문화재단의 스낵콘서트가
펼쳐지는 곳으로 가보자.

〈스낵콘서트〉는 화성시 찾아가는 공연장의 대표 브랜드로 화성지역 중에서도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예술공연을 보여주고자 시작되었다. 스낵콘서트의 모습은 다양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만나는 음악회는 뜨거운 햇볕에 땀 흘린 후 먹는 새참이 되기도 하고, 답답한 사각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는 달콤한 낮잠과 같은 꿀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서비스를 만난다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옆 사람과 맞장구를 치며 웃을 수 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공연을 관람하기도 한다. 이렇게 스낵콘서트는 일상에서 쉽게 또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찾아온다.

행운으로 찾아온 스낵콘서트

6월 4일 토요일 에코센터에서 스낵콘서트가 열렸다. 한적한 시골 마을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일상에서 보기 힘든 소. 돼지



축사가 보인다. 함께 간 아이들은 동물원에 소풍 온 듯 재잘거린다. “너 송아지 봤어? 난 두 마리 봤다~~” “잉, 난 한 마리밖에 못 봤는데….” “소똥 냄새 나는 것 같아” “꽃냄새도 나는데?” 출발한 지 불과 15분이 지났을 뿐인데 아이들은 이미 나들이 기분을 한껏 내고 있다. ‘여기까지 공연 보러 많이 올려나’ 하는 걱정도 잠깐 주차장에 차가 많다. 이 많은 차가 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일까 생각하며 에코센터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두리번거리고 있던 내게 친절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온다. 공연장은 에코센터 옆 그린환경센터 미래관이란다. 허둥지둥 공연장에 들어서니 입구에 ‘화성시 환경의 날 축제’라는 배너와 안내지가 보인다. 행사 안내지를 살펴보니 스낵콘서트에서 하는 마임공연 뿐만 아니라 환경인형극, 축하공연, 요요 공연이 적혀 있다. 시간을 보니 이미 두 개의 공연은 끝났고 <요요 공연>과 <스낵콘서트>가 남아 있다. 스낵콘서트만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엉겁결에 두 가지 공연을 즐기게 되는 행운을 누려본다.



관객과 함께 호흡한 스낵콘서트

공연장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니 150석의 객석을 가득 채우고도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환경의 날 행사에 맞춰 ‘환경퀴즈 맞추기’가 한창이다. 다들 하나라도 더 맞추겠다는 결연한 눈빛이다. 뒷줄에 앉은 관객들은 조금이라도 질문자의 이목을 끌어보고자 자리에서 방방뛰고 소리치고,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나와 YOUTUBE에서나 봤음직한 현란한 요요 기술을 선보인다.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가 1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넓은 무대를 가지고 논다. 열정이 대단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회자는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동안의 시행착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달인 한 명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렇다. 매일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열 일 젖혀두고 요요만 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잘 참아낸 부모 턱에 저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무대에서 자신의 열정을 펼치는 아이가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듈다. 드디어 스낵콘서트 ‘마블러스 오션’의 마임공연이 시작됐다. 대사 없이 진행되는 마임공연인데 이분들 끊임없이 말을 한다. 적절하게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더니 반응이 없는 관객을 보고는 박수 치라고 협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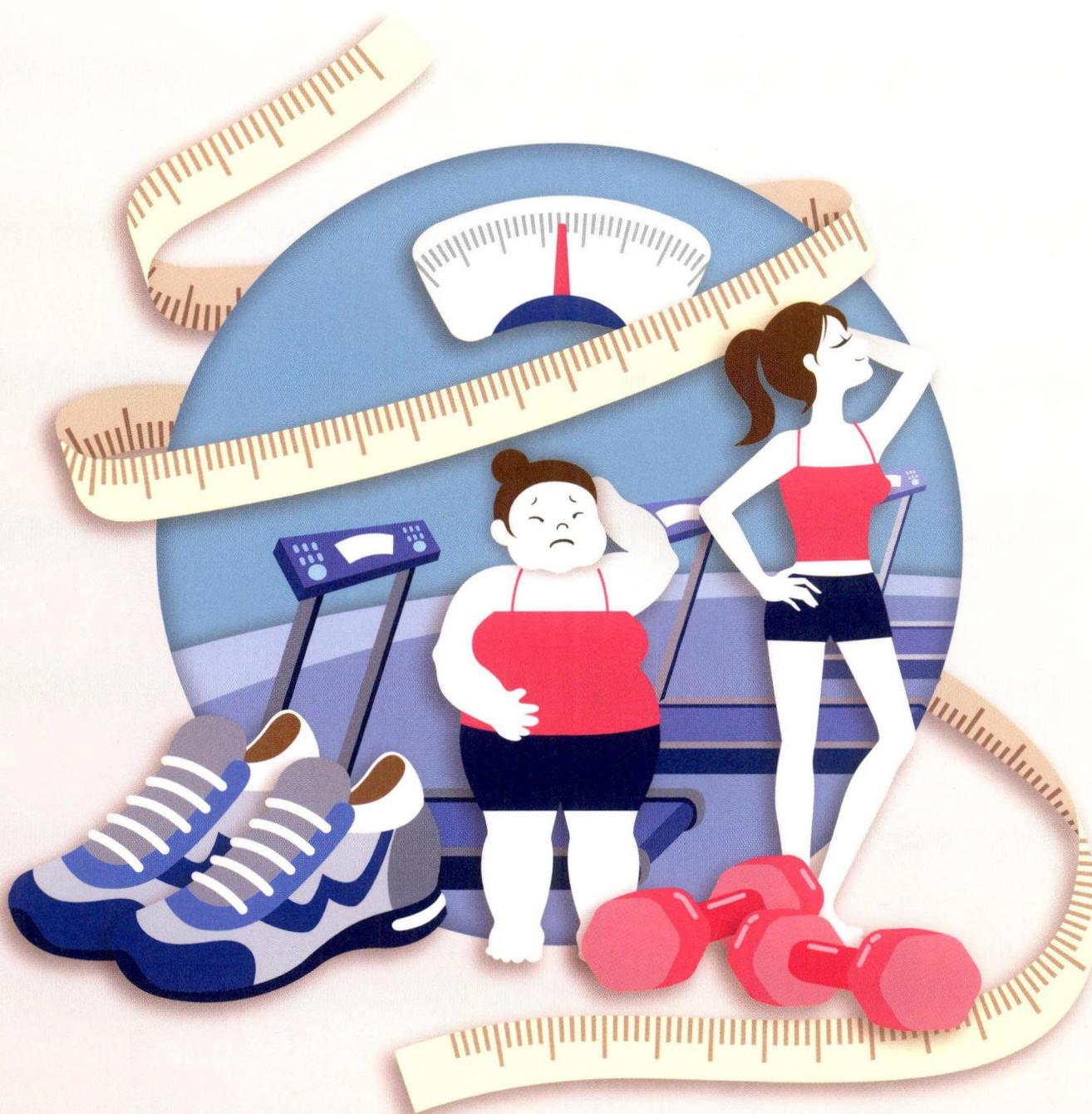
는 당당함까지 보인다. 무언가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마임이 스트들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내 눈에만 의자와 벽, 공이 안 보이는 건가. 이번에는 무거운 여행 가방 하나를 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쓴다. 그러나 안 되겠는지 객석에 있는 아이 하나를 부른다. 7살쯤 보이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무거운 가방을 들어본다. 번쩍, 너무 쉽게 들린다. ‘이 아저씨들 거짓 말쟁이네~’하는 표정으로 새침하게 돌아서 내려오는 아이의 모습에 객석은 웃음바다가 된다. 이번에는 관객들 간의 배틀이다. 관객석을 둘로 나눠 공연자의 신호에 맞춰 박수를 치란다. 단순한 미션인데 그게 뭐라고 굳은 의지를 보이며 뚫어질 듯 지휘봉의 끝을 쳐다본다. 몇 번 박수를 치다보니 익숙한 리듬에 끌려 나도 모르게 치면 안 될 지점에서 박수를 친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집중하지만, 또 내 마음과는 다르게 박수를 치고 만다. 실수에 무안한 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고, 공연은 피날레를 향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우르르 나가는 관객들의 표정에는 만족함이 가득하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다음 기회를 기대하게 된다.

‘스낵콘서트’는 기존의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에 새로운 문화 트렌드인 ‘스낵컬쳐(Snack Culture: 일상 속 짧은 시간 동안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트렌드)’가 접목되어 재탄생한 생활 속 공연 서비스이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공공시설, 학교, 기업체 강당 등에서 진행되며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기간 몸만들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운동은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가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운동 강도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알 때 비로소 진정한 몸만들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단기간 몸만들기의 위험성

대다수의 광고를 보면 '단기간 복근 만들기' '4주, 8주 완성' 등의 자극적인 단어들이 눈에 띈다. TV 프로그램조차도 단기간 체중감량을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다. 단언컨대 이런 광고들에 속지 않아야 한다. 운동처방 시 균형이 깨지면 운동 과다증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대부분 급하게 몸을 만들거나 체중을 감량할 때 생긴다. 단기간에 근육 만들기는 가능할지 모르나 하루 한 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으로는 단기간에 원하는 체중감량이나 근육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운동 시간을 3~4시간까지 늘리게 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동 강도를 격렬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는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단기간 속성근육 만들기는 물풍선과 같다

우리의 몸은 근육이 커질수록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유산소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단기간에 근육을 만들다 보면 근력 운동에 집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덜하게 된다. 이는 실속 없는 물풍선처럼 근육의 크기만 비대해져 오히려 심장 능력이 떨어지는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근육과다 사용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녹는 병이다. 근육이 단순히 상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내린 근육이 심장에 흘러들어가 심장 기능을 망가트리는 것이다. 그 동안 축구, 마라톤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나 나타나던 생소한 질환이었는데, 요즘 들어 단시간 과격하게 하는 운동들이 인기를 끌면서 운동 초보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질환이 되었다.

※ 횡문근융해증 증상 : 심한 근육통, 경련, 경직, 콜라색과 같은 소변색, 운동 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

관절은 하루에도 몇천 번이나 움직이기에 노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관절에 악영향을 미친다. 러닝머신에서는 걷더라도 체중의 3~4배를 부하 받기 때문에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고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염, 어깨충돌증후군, 발목인대 손상과 같은 근골격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관절에 탈이 나면 활동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체중이 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스포츠과학연구소

건강체력, 기능적체력, 자세평가, 보행동작분석 등 특화된 장비를 통한 정확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031-267-8857, 8858, 8859

주소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B2

건강한 몸만들기를 위한 방법

건강한 몸은 평생에 걸쳐 만드는 것이다. 단기간 몸만들기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심리로 오버트레이닝을 하기 쉬운데, 이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다이내믹한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고 차근차근 운동을 시작해보자.

① 운동 중 체력측정

체력측정은 운동 전·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중간에도 필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나에게 맞는지,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신체조성과 같은 체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찾을 수 있다. 체격(체중), 운동 경험만으로는 적합한 운동 강도를 알 수 없다. 본인에게 알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것이 건강을 잃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②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기

근육에 열을 내고 고통스러워해야지만 운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힘들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동 중의 고통이나 통증은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이다. 신체활동 동안 느끼는 아픔은 분명 무언가가 많이 지나쳐 있다는 것이다.

③ 적절한 수분 섭취

수분 섭취는 앞서 말한 횡문근융해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분 공급은 운동 중 체온을 조절해주고,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어 운동 효율이 높여준다.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200~500ml 수준의 과하지 않은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④ 단백질 과다 섭취 금지

단백질 보충제의 주 효과로 근육량 증가를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문구만 본다면 단백질 보충제 섭취만으로 근육이 생긴다 착각하기 쉽지만 1일 5시간 이상 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달리 보충제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는 심장에 가장 먼저 무리를 주게 된다. 또한 운동이 병행되지 않은 단백질 섭취는 불행히도 근육보다는 체지방만 증가시키게 된다.

⑤ 근육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자

속성 근육을 만들다 보면 근육 만들기에만 치우쳐 유산소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 겉으로만 비대해진 몸매를 갖기보다는 심장근육도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 근력 운동과 함께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같이 실시하여야 비대해진 근육에 걸맞은 심장 능력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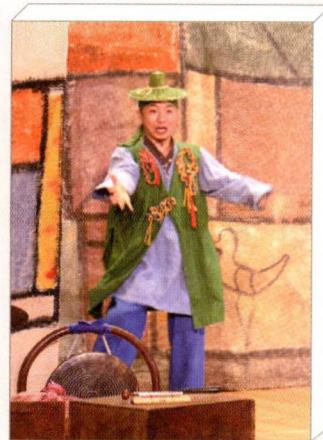
⑥ 준비운동,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초보자의 실수 중 하나가 준비운동을 생략하거나 대충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꾸준히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의 느낌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우리 몸을 천천히 워밍업 혹은 안정시키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방지해 준다. 당장에 뒷산에 올라가더라도 10분 이상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정성 들여 하면 산에 올라가기 편해질 것이고, 등산 후에도 근육통이 덜할 것이다.

Review&P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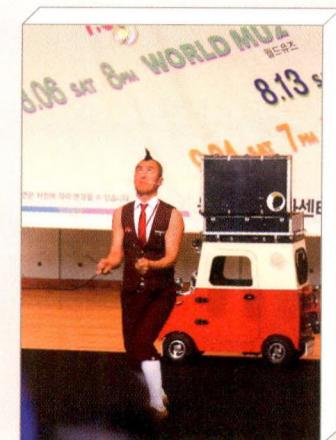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깨비의 도깨비 감투'



아동극과 마당극은 따로 놓고 보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그런데 어린이 마당극이라 하니 도대체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궁금해진다. 지난 6월 화성시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마당극 '깨비의 도깨비 감투'를 선보였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공연장-우리동네 연극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이 공연은 화성시 내 연극단체의 우수한 공연을 발굴해 지원하고, 이를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화성시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고자 시작됐다. 해당 공연은 12일 송산도서관을 시작으로 22일 송라초등학교, 25일 봉담도서관, 30일 서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6월 25일, 공연을 보기 위해 봉담도서관을 찾으니 공연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객석이 다 찼는데도 뒤늦게 공연 소식을 듣고 온 관객들이 여전히 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약간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은 해설자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깨비의 도깨비 감투'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액자식 구조으로 아이들이 이해하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다. 해설자의 설명이 끝나니 도깨비로 분장한 세 명의 배우가 옥신각신 한다. 그러다 왜 저럴까 싶은 순간 이야기는 과거로 흘러들어간다. 어른인 나조차도 이야기의 맥을 놓치지 않을까 집중하게 된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도록 세 명의 배우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무대와 객석을 뛰어다녔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호응한다. 내용 또한 아이들 공연답게 교훈적인데, 별거 아니지만 떼쓰기 일쑤인 아이들에게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크게 다가오는 듯 했다.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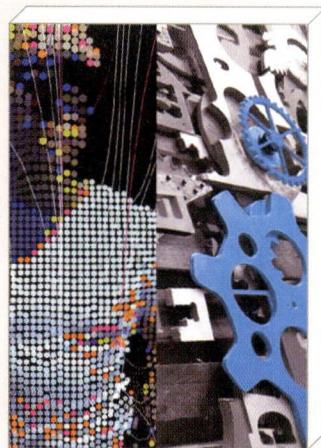
푸른 잔디밭을 누비는 서커스 한 판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갈 즈음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피크닉존에 뜻자리가 하나둘씩 깔리기 시작한다. 객석은 이미 일찍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어떠한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온 것만 해도 기분이 좋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측면에서 꼬마아이가 겨우 들어갈 만한 빨간색 자동차가 슬금슬금 나온다. 차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예상과 달리 건장한 모습의 어른 남자이다. 닭벼슬을 단 듯한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유치원복과 흰색 타이즈를 신은 모습까지 보기만 해도 관객들은 웃긴다. 그는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이자 서울 거리 아티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린보이. 능숙한 서커스 광대답게 저글링도 3개, 4개, 5개로 늘려가면서 시선을 끈다. 한껏 흥이 오른 그는 9개의 저글링으로 기네스기록에 등재되었다는 농담을 하고 관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어 그는 공연을 함께 이끌어줄 관객을 찾는다. 영화 조스의 배경 음악이 깔리고, 관객들은 숨을 죽인다. 그렇게 선택된 한 남자가 얼결에 무대 위에 세워지고, 움직이면 다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던 마린보이는 무엇을 하려 그러는지 저 멀리 걸어간다. 곧이어 관객이 들고 있는 신문이 찢어진다. 놀랄 틈도 없이 한번 두 번 계속해서 신문이 찢어진다. 보는 이도, 서있는 이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연은 이렇게 관객들과 호흡하며 절정으로 가고 있었다. 마린보이는 공연이 진행되는 틈틈이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 모았다. 평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아빠 관객들도 야외공연장의 자유로움에 흠뻑 취했는지 너도나도 참여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다. 이 모습에 함께 온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느덧 나른했던 오후는 유유히 흘러갔다.

Preview

동탄아트 스페이스 : 키네메틱스 展



키네틱 아트란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품을 총칭한다. 미술시간에 한 번쯤은 봤을 칼더의 <모빌>처럼 바람이나 손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모터 장치를 이용한 작품, 움직이는 영상이나 빛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작품들까지 그 범주는 다양하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키네메틱스-Kinematics’라는 제목으로 두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객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새로운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설치 작업을 하는 김동현 작가는 키네틱 아트의 매력으로 ‘사소한 변화가 미치는 전체의 변화’를 꼽는다. 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회, 환경과 우주의 긴밀한 연관성을 탐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작가는 관객들이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즐거움과 유희’라는 코드를 녹여내기도 했다. 하석준 작가는 영국의 작가 올더스 혁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1932)>에서 말하는 미래에 주목한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잘 진화된 기술 속에 적당히 통제되는 우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일까? 아니면 기술의 도움 없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그의 작업은 이러한 질문들의 연속이다. 또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든 기술의 발전을 당연시하고, 그 환각 속에 취해 있는 자신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키네틱 아트와 같은 인터랙티브 작품은 관객들의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만큼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것이 관객에게나 작가에게나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잊고 그냥 한 번 전시장을 찾아 가보자.

Preview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2016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가 7월 9일을 시작으로 총 9회 개최된다.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거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지역문화특구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달 다른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해 화성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7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물놀이 축제’를 테마로 정했다. 워터슬라이드, 물총싸움, 물풍선 던지기 등 멀리 바다에 가지 않아도, 워터파크에 가지 않아도 시원한 물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최되는 8월에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 함께 올림픽을 응원하고, 주민들 간의 미니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뜨거운 여름 햇살을 응원의 열기로 식힐 준비가 되어있다. 이어 9월엔 한가위, 먹거리 테마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보름달처럼 풍성해진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먹거리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10월에는 높은 하늘 만국기를 떠올릴 수 있는 운동회와 생각만 해도 더위가 싹 물러가는 할로윈 파티가 열린다. 일상에 지쳐 특별한 이벤트를 원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해보길 권한다. 이처럼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개개인이 관람하는 공연이나 전시이기보다는 같이 즐겨야 비로소 빛이 나는 화합의 장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신도시의 복잡함을 뒤로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가 바라는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곧 장마가 지나가면 짐통 같은 더위가 찾아온다. 덥다고 집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차가 없는 거리로 나와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HWARO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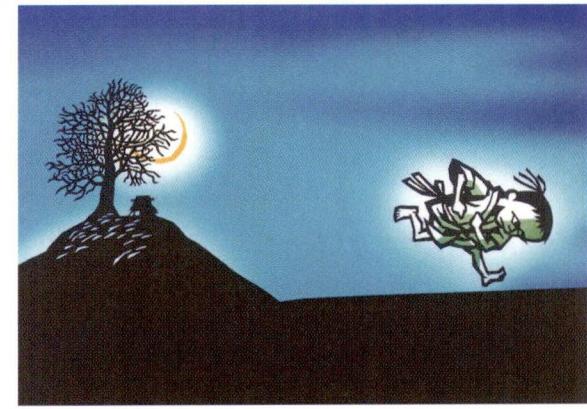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남양도서관

지난 6월 16일, 남양읍에서는 '남양도서관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1994년 4월 1일 화성시 최초의 도서관으로 개관한 남양도서관은 1998년 2월 21일 군립도서관으로 개정된 후 2001년 3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화성시립남양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관 이래 남양도서관은 도서관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과 계층에게 다양한 독서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성시 곳곳을 찾아다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왔으며, 화성시 내 각지에 시립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함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폐관하고 남양지역의 시립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2017년 8월 새롭게 개관되는 남양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주변의 녹지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일반자료실, 열람실, 문화교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등을 최신 시설로 구성하여 남양읍 주민들과 화성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남양도서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남양읍 남양리 1586번지로, 기존 도서관에서 멀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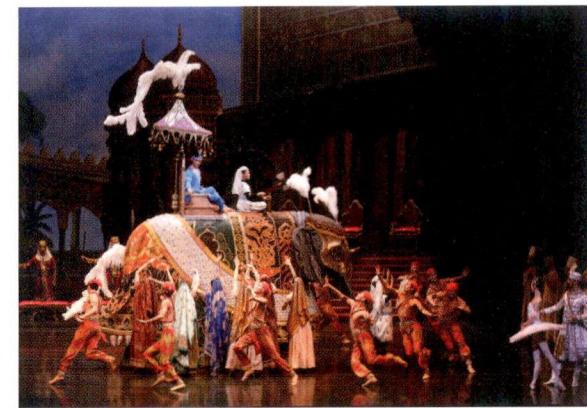
품앗이공연예술축제 – 해외조정작시리즈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농촌마을에서 펼쳐지는 화성시 대표 순수공연예술축제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문화에 젖어드는 축제, 자연과 평화를 지향하는 작고 알찬 축제로 성장해왔다. 7월 24일과 30일 반석아트홀에서 선보이는 우루과이의 블랙라이트 인형극 〈올레즈의 트릭(El Truco De Olej)〉과 일본의 그림자극 〈모치모치나무〉는 화성시문화재단이 '품앗이공연예술축제'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작품들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재미와 감동의 해외작품들을 선정해 화성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좌석을 천원에 판매하는 '천원의 행복'을 통해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공연 관람에 대한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올레즈의 트릭〉은 미국,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이상에 소개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검은 무대 위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마술 같은 장면들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서커스와 저글링을 극 속에 녹여내 재미를 더했다. 일본 최고의 그림자극을 선보이는 가게보시 극단의 〈모치모치나무〉는 일본에서 '산케이 아동출판문학상' '쇼각칸문학상' 등을 받으며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했다. 그림자극으로 펼쳐지는 이 공연은 빛과 소리를 통해 할아버지와 손자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과 용기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상영 – Arts Movie Series

8월 방학을 맞아 예술의전당의 우수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한정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공연들을 생생한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는 예술의 전당 공연실황상영 프로젝트인 'SAC on Screen'이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야외공연장과 반석아트홀에 찾아오는 것. 초대형 스크린과 최고급 음향시설을 통해 VIP석에서도 볼 수 없는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까지 느낄 수 있는 실황상영은 공연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상영회는 8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코리안 심포니의 'Spirit of Beethoven', 오페라 '마술피리', 유니버설발레단의 '라바야데르', 코리안 심포니의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가 순차적으로 상영되며, 반석아트홀에서 진행되는 10일과 17일 공연은 전화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공연의 경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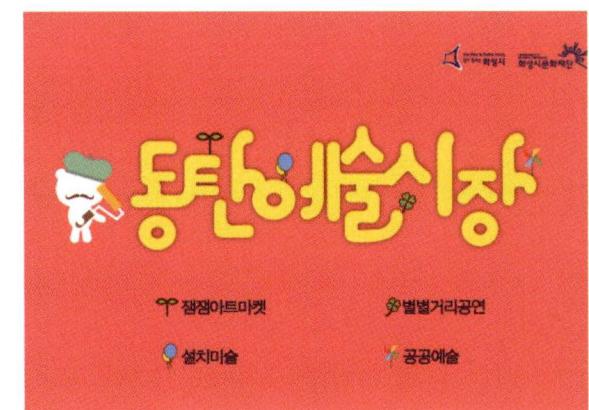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8월 25일 60년 역사를 가진 스페인 최고의 합창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주요멤버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화성아트홀을 찾는다. 1999년 지휘자 임재식이 창단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서 정기 공연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레파토리에는 우리의 민요와 가곡이 빠지지 않는다. 스페인의 국가적인 축제 및 주요 연주회에 참여하며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교류에 기여역할을 하고 있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화성시와 함께하는 2016 에스파냐 아리랑'에서 '라바삐에스의 이발사(Barberillo de Lavapies)'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스페인 음악 '비둘기의 춤(Cancon de Paloma)' 한국 전통 민요 '몽금포 타령' '뱃노래' '밀양아리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탄에서 '담판을 벌리다'

2016 동탄예술시장은 '담(Dongtan Art Market) 판을 벌리다'라는 슬로건아래 시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창작자와 예술가들을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상예술의 장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첫째 · 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버스킹 형태로 진행되는 동탄예술 전야제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잼잼아트마켓, 설치미술, 공공예술프로젝트, 별별 거리공연 등 5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거리 예술판이 펼쳐진다. 동탄예술 전야제는 화성시의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펼치는 무대로 재능 있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숨겨진 끼를 발휘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콘서트이다. 동탄예술 전야제의 참여기회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과 일상공간에서 친숙하게 작품을 만나고 싶다면 주말 가족과 함께 동탄썬큰광장으로 나들이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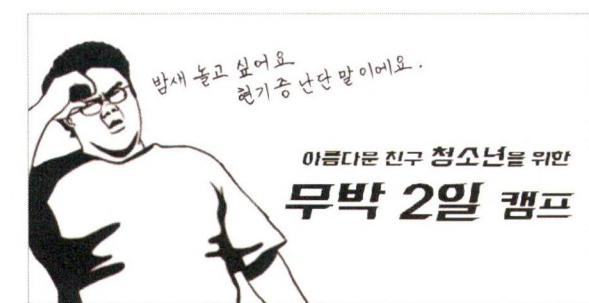
가족과 함께 '관광으로 배우는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은 최근 관광의 트렌드가 가족여행, 학습체험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2016 우리가족 체험학습여행 '관광으로 배우는 화성시!'를 운영한다. 당일여행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화성시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내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어른들에게는 잊혀져 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벗삼아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연과 환경적 자원이 뛰어난 농촌체험학습마을 방문을 중심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7월 23일, 30일, 8월 6일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된다.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캠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가족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7월 8일에서 9일까지 진행되는 <무박2일 캠프>는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가 중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해 방황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을 운영한다. 7월 23일에는 각각 1박2일, 2박3일로 아빠와 함께 하는 <청소년 부자캠프>, 엄마와 함께 하는 <토닥토닥 힐링캠프>가 시작된다. 이는 청소년시기에 문제시되는 부모와의 소통단절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토닥토닥 힐링캠프>를 통해서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청소년 부자캠프>를 통해서는 아빠와 아들의 대화부재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HWABOON NEWS

청소년수련관 '스킨스쿠버' 수강생 모집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한 스포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여름 진행되는 '스킨스쿠버' 과정은 화성시 청소년들이 해양실습을 통해 자신의 극기와 도전을 달성하는 성취동기역량을 발휘하고, 보다 건전한 레저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수업은 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청소년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의 중요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고 빈번한 수상활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7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업은 8월 중 총 8회 진행되며, 참가자 전원은 스킨스쿠버 Open Water Diver 라이센스(IANT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내 동아리인 <솔솔동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7월에서 8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11시에 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내 유아열람실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병점도서관 맨부커상 수상작 전시

한강의『채식주의자』가 한국인 최초로 2016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여 시상식이 열린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들썩거렸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맨부커상은 심사과정에서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대중과 매우 친근한 상이다. 병점도서관에서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강의 수상을 기념하여 살만 루슈디의『한밤의 아이들』외 역대 맨부커상 수상작 15종과 한강의 작품 15종을 소개하는 전시를 가졌으며, 소개된 도서는 병점도서관 자료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 독서회 '꿈꾸는 책나무'

병점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독서생활화와 올바른 독서습관을 돋기 위해 어린이 독서회 '꿈꾸는 책나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모집, 시작된 '꿈꾸는 책나무'는 연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4가지 기본 영역을 기초로 체계적인 독서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생하게 독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8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독서활동과 함께 수원화성박물관 답사 등의 현장학습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독서회 수강생들의 작품을 문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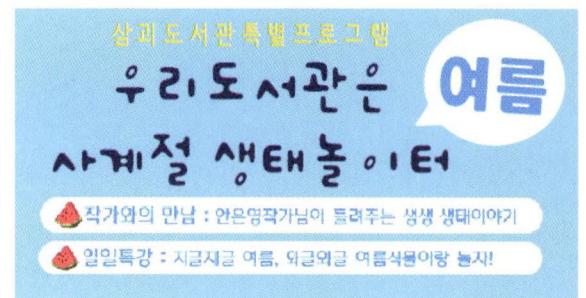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은 과학이 특성화된 도서관답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밖 공원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직접 관찰하며 계절을 느끼고, 평소 알지 못했던 식물과 곤충에 대해 알아보며 숲과 친해진다. 지난 봄 성황리에 종료된 <봄 내음 봄 향기>에 이어 여름 프로그램 <시끌벅적 여름나기>로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알록 달록 가을숲>이라는 주제의 가을 프로그램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 생태프로그램으로 이겨내자!

삼고도서관은 자연, 생태, 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 도서관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사계절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봄 진행되었던 ‘우리도서관은 사계절 생태놀이터’에서는 어린이들이 꼬마농부가 되어 직접 상추와 토마토, 고추를 기르고, 『내가 키운 채소는 맛있어(한림출판사)』의 저자로부터 생태이야기를 듣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7월 26일에 진행되는 여름 생태프로그램에서는 수생식물을 심어보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지글지글 여름, 와글와글 여름식물이랑 놀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일일특강, 『찾았다! 갯벌 친구들(길벗어린이)』, 『지렁이 굴로 들어가볼래?(길벗어린이)』의 저자 안은영 작가로부터 듣는 여름 생태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원화 전시와 여름에 읽으면 좋을 추천도서 전시, 여름방학 가족과 같이 볼만한 애니메이션 5편도 상영 예정이다.



송산도서관의 핑크 디노와 춤추는 포도

송산도서관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Dancing Grapes: 포도관찰일지〉는 포도산지로 유명한 송산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포도 묘목을 직접 길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포도를 수시로 관찰하고 매주 자라나는 잎사귀를 재보는 등 체험을 통한 값진 경험을 하게 된다. 송산 지역은 공룡알 화석지로도 유명하다. 〈Pink Dino의 그래! 공룡이 살았지!〉에서는 지역의 생태 관련 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공룡화석뜨기와 우드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코리아케라톱스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잊혀졌던 화석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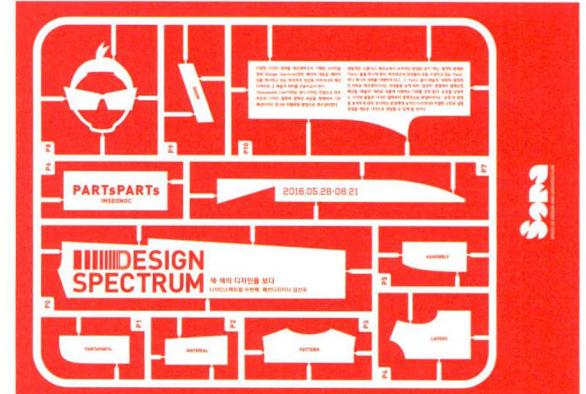
엄뮤지엄 ‘엄태정 드로잉 조각전’

화성시 최초의 공식미술관 엄뮤지엄에서는 7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엄태정 드로잉 조각전’을 전시한다. 작가의 작업공간이기도 했던 엄뮤지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각가 엄태정이 1980~1990년대에 제작한 드로잉과 조각을 선보이는 뜻 깊은 자리다. 작가는 ‘공간에 그리는 일에서 또 다른 공간을 탐색한다. 묵(墨)공간은 어둡고 조용하니 환영이 보인다. 묵(墨)의 길을 찾아, 깜댕이 묵(墨)의 길을 더듬어 묵가(墨家)를 짓는다. 탈정(脫井)하려 몸부림치고 꿈틀거려 묵가(墨家)를 짓고 공간을 불러 담아둔다’며 전시를 설명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흑백의 공간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소다미술관 ‘Design Spectrum’ 展

소다미술관은 5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디자인 스펙트럼 Design Spectrum 展’을 통해 ‘2016년 디자인’의 영역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관객들은 디자인을 결과물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사용할 뿐 그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디자이너들의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수많은 검증과정에 주목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소다미술관은 다양한 영역의 대표 디자이너를 선정하고, 그들의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디자이너의 치열한 고민과 창조의 과정 그리고 그 전반에 담겨있는 디자이너의 확고한 철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캘린더

07

2016. JULY

화성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합니다.

초록이 가득한 7월,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풍성한 공연,
전시, 문화이벤트를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www.hcf.or.kr

SUN

MON

TUE

3

아트스페이스 생태특별전시전
병점도서관 코리요아트 2008 전시
유엔아이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대회 09:30

4

아트스페이스 생태특별전시전



5

아트스페이스 생태특별전시전

10

11

12

17

18

19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24

25

26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반석아트홀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올레즈의 트릭 15:0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31

※ 상세일정의 경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ED

THU

FRI

SAT

1

2

아트스페이스 **생태특별전시전**
 동탄싼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9:00**
 병점도서관 **코리요아트 2008 전시**

아트스페이스 **생태특별전시전**
 동탄야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미스터베이스 17:00**
 동탄싼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1:00**
 병점도서관 **코리요아트 2008 전시**
 화성아트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어울림콘서트 17:00**

6

7

8

9

화성아트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명사특강 14:0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무박2일 캠프 19:00**

화성아트홀 **테이스트무브먼트 17:00**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새싹영어경제 15:00**
 충사용문학관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거인 14:00**
 청소년수련관 **꿈여울리더십**
상반기 피드백 교육 10:0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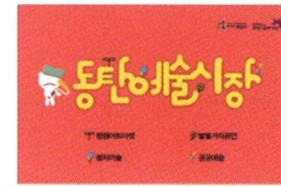
14

15

16

동탄싼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9:00**
 충사용문학관 **장옥관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트래킹 15:00**

동탄싼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1:00**
 동탄야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잼스틱 19:00**
 소마미술관 **마스 플리마켓**



20

21

22

23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충사용문학관 **김소연 시인특강 14:0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동탄야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에스플라바 20:00**
 반석아트홀 **가족 뮤지컬: 지파이터스 14:00**
 병담도서관 **어쿠스틱 밴드의 기차여행 15:00**
 삼괴도서관 **안은영 작가의 생생생태이야기 10:00**
 충사용문학관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꿈보다 해몽 14:00**



27

28

29

3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반석아트홀 **아침에 만나는 음악회: 세익스피어&세르반테스 11:00**
 병담도서관 **영화: 월드 워 제트 19:00**
 충사용문학관 **서유미 소설가 특강 14:0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반석아트홀 **품앗이공연예술축제: 모치모치나무 11:00 / 14:00**
 동탄야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뮤직클래프 솔리스트 양상불 20:00**

문화캘린더

08

2016. AUGUST

화성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합니다.

www.hcf.or.kr

SUN

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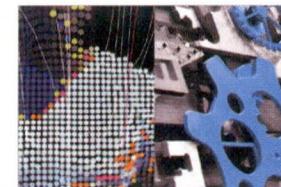
TUE

1

2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7

8

9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14

15

16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21

22

23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동탄야외공연장 가족뮤지컬: 코리요 19:3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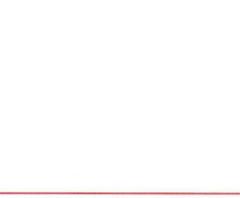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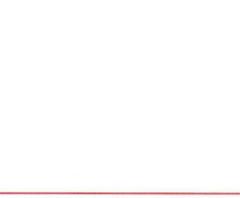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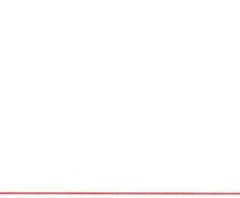
3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메틱스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 상세일정의 경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ED	THU	FRI	SAT
3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동탄아외공연장 ARTS MOVIE SERIES: 코리안 심포니 'Spirit of Beethoven' 20:00 	4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5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6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동탄아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월드뮤즈 20:00
1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반석아트홀 ARTS MOVIE SERIES: 오페라 '마술피리' 20:00 	11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12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13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동탄아외공연장 오픈 더 콘서트: 으르차차 커다란 순무 20:00 총사용문화관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4:00
17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반석아트홀 ARTS MOVIE SERIES: 유니버설발레단 '라바야데르' 20:00 	18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19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화성아트홀 EBS 딩동댕유치원 '뚜양' 11:00 / 14:00 동탄씨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9:00 반석아트홀 화성시 뮤지컬단 정기공연 19:30 	20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화성아트홀 EBS 딩동댕유치원 '뚜양' 11:00 / 14:00 동탄씨큰광장 동탄예술시장 11:00 봉담도서관 ARTS MOVIE SERIES: 지젤 15:00 동탄아외공연장 가족 뮤지컬: 코리요 19:30
24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동탄아외공연장 ARTS MOVIE SERIES: 코리안 심포니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20:00 	25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화성아트홀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19:30 	26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27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아트스페이스 키네마틱스전 반석아트홀 한여름 밤의 꿈 17:00 화성아트홀 화성 착한노래 만들기 '꿈의 학교' 17:00 봉담도서관 스낵콘서트: 신나는 마술여행 15:00 총사용문화관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말할 수 없는 비밀 14:00 동탄지성로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13:00
31 유엔아이센터 생태특별전시전 화성아트홀 오전음악회: 이경선과 함께하는 파리기행 11:00 봉담도서관 영화: 아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9:00 병점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세상을 비추는 영화 19:00			

Arts Movie Series

예술의전당 공연실황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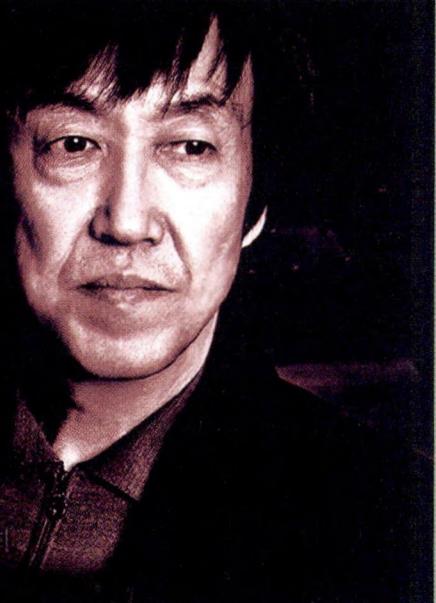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오후 8시

마에스트로 임현정의

SPIRIT OF
BEETHOVEN



체코적이면서도
미국적인
교향악 예술의 걸작

지휘 임현정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A. Dvořák, 1841-1904



08. 03(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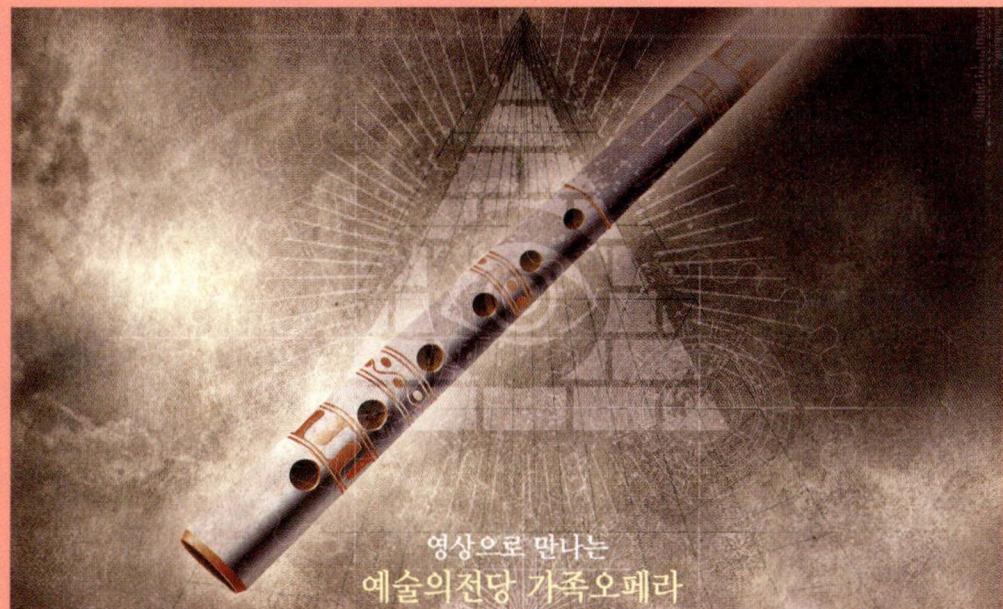
Spirit of Beethoven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8. 24(수)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오후 8시

영상으로 만나는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La 라 바야데르
Bayadère



08. 10(수)

마술피리
오페라

08. 17(수)

라 바야데르
유니버설발레단

동탄예술시장



짭짬아트마켓

설치미술

별별거리공연

공공예술

07.15(금) ~ 07.16(토)

08.19(금) ~ 08.20(토)

썬
메
타
큰
폴
리
광
스
인
장
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과 피크닉존